

금주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듯이 교회 총격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사탄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11월 11일 (토) 제 165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텍사스 교회총격사건

교회 안전 확보에 마지막 경종

CT,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일침례교회 대량 살상사건 통해 ‘교회 안전위한 노력 요구된다’ 고 보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교회 총격사건이 11월 5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던 텍사스주 한 시골교회에서 발생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일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 중 5살부터 72살까지 나이의 대 26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총격을 난사한 범인은 최근 공군에서 불명에 제대한 데빈 패트릭 켈리(26)로, 아직까지는 어떠한 이유로 이처럼 끔찍한 만행을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사실이 없다. 평화롭던 주일 오전, 서덜랜드 스프링스를 강타한 이번 대량 살상 사건은 1963년 이후, 미국 역사상 교회에서 벌어진 14번째 비극이며, 텍사스 주에서는 2009년 포트 후드 육군기지에서 13명이 살해된 사건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긴 사건이다.

총기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교회라는 환경 때문에, 일본을 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을 보도받자마자, “피해자들이 성스런 예배를 드리던 장소에서 악마적 행위가 발생했다. 우리는 고통

과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으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의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깊은 애도를 전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손을 잡고 팔을 걸고 눈물과 슬픔을 통해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라며 총격에 휩싸인 미국인들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가족과 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돌기를 기도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일침례교회 총격 사건은 한마디로 폭력 앞에서 “교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사건으로 풀이되고 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특별히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교회 총격 사건이후, 교회 안전과 보안문제 전문가인 칼 친(Carl Chinn)이 이미 제기한 ‘교회 안전 불감증’의 원인들과 함께, 향후 동일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Texas Shooting Kills 26 at Southern Baptist Church: Tragedy at First Baptist Church of Sutherland Springs is deadliest attack on a house of worship in US history).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무고한 사람들이 총격으로 희생됐다는 사실이, 이번 총격사건의 무게를 더해준다. 텍사스주 그렉 앨보트 주지사는 “무고한 사람들이 고개 숙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총격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가장 참담한 비극”이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교회 보안/안전 문제 전문가인 칼 친은 이번 사건이 “미국 역사상 교회에서 벌어진 가장 참담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바로 예배를 드리던 중 발생했기 때문이다.

친은 2005년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뉴라이프교회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시켰고, 실제로 2년 후, 총기를 들고 온 외부 침입자를 받아들였다(그는 ‘Evil Invades Sanctuary: The Case for Security in Faith-Based Organizations’의 저자이기도 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carlchinn.com](http://www.carlchinn.com)에서 얻을 수 있다).

친이 구축한 교회 인명 살상/사고 데이터 베이스에 따르면, 남침례교회 소속 교회들은 지난 1999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345건의 인명 살상과 부상 사건들로 이름을 걸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교단에 가입되지 않은 독립교회들에서 370건의 사고들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횟수와 교단과의 사고 연관성은 없다(참조 표표 1 - 3면).

이번 서덜랜드 스프링스 침례교회 대량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총격을 당한 텍사스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일침례교회 앞에서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

살상 사건 전에 벌어진 동일 사건은 1980년 텍사스 동부 지역 침례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예배를 드리던 5명의 교인들과 10명이 부상당했다.

이처럼 교회들 즉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들에서 살인과 같은 폭력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내쉬빌 외곽 지역에 있는 교회(Burnette Chapel Church

of Christ)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무자비한 총질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나 부상당했다.

친은 교회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사전에 예방하거나 살상이나 부상을 최소화할 수 대안들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라도 지적한다.

〈3면으로 계속〉

초대교회 통해 소그룹 방향성 배운다!

스몰그룹.넷, 새들백교회 소그룹 사역담당  
스티브 글레이든 목사가 전하는 사도행전적 소그룹 소개

이 세상에 다양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진 여러 소그룹이 있지만, 성경적 소그룹 모임은 원천적으로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다. 반드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유형과 목적을 통해 형성되고 활동도 하게 되지만, 크리스천들이 함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모이는 소그룹은 단순히 유형과 활동으로 분류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이 있다.

일반적인 소그룹과 교회의 소그룹을 핵심적으로 구별하는 요소는 그 그룹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적 소그룹은 다른 일반적인 소그룹과는 달리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통해 주시는 여러 통찰들도 건강하고 효과적인 소그룹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그룹 안에 형성하는 토대는 성경에 드러난 진리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구별된 소그룹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스티브 글레이든(Steve Gladen) 목사는 성경말씀, 특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 윤곽을 그려준다.

주 안에서 교제하는 목적 갖고 영적 성장에 관심  
서로 섬기며, 전도와 예배 함께 하는 균형 맞춰야

교제하는 소그룹

사도행전에 드러난 초대교회의 소그룹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영적이고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2:46)라는 말씀은 소그룹 구성원들이 함께 소그룹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의 소그룹은 함께 식사를 하는가? 서로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서로 베푸는 섬김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만남을 지향하고 있는가? 성경적 소그룹은 단순히 사무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모이는 그룹이 아니라, 그리스도안에 있는 교제를 힘쓰는 소그룹이다.

훈련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소그룹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선포한다. 이는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데에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각 가정과 여러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힘을 다했을 것이다. 그저 만날 때 느끼는 반가움과 감사함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을 향한 분명한 방향성이 성경이 기록하는 초대교회 소그룹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속한 소그룹이 영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서로에게 사역하는 소그룹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행2:45) 섬겼다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소그룹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드러낸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http://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mailto: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시론  
최해근 목사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4면  
미니 인터뷰  
에스터임 전도사

16면  
인/터/뷰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부부

Division of Faith

현수막 | 천막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프로모션 상품

디자인서비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카라반 캐노피는 18년의 대형 프린팅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현수막

미디어벽

플래그

X-배너거치대

롤업배너

백걸이 포스터

예수, 부활하셨네

Merry Christmas 성탄축하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14600 Alondra Boulevar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714.367.3046 (한국어) [www.caravancanopy.com](http://www.caravancanopy.com)



## 시론

###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며....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올해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자신의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교회의 문에 못 박은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년과는 달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돌아보는 많은 세미나와 강연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며, ‘어쨌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며 물리와 관계된 재미있는 유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대물리학의 중심 내용 중 하나는 ‘양자물리학(量子物理學)’입니다. 어느 TV 대담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대담 프로에 나온 분에게 ‘양자(量子)’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나고 했을 때 그분의 대답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양자’는 ‘양자택일(兩者擇一)’이라고 하는 그 양자(兩者) 밖에 아는 것이 없다고 하여 다들 웃었습니다. 양자물리학의 양자도 모르는 사람이 양자물리학에 대해 말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회자(膺次)되는 내용들이 루터, 칼빈 그리고 쾰빙글리가 추구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 현대 사람들의 입맛을 채워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은 윤리회복운동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적인 은혜로써 주어지는 구원과 오직 성경만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론에 오르내리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많은 기사들은 정작 개혁자들이 그렇게 가슴에 품었던 가치보다는 우리 시대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의견을 좀 더 신학적인 단어들을 가미하여 세련되게 표현했을 뿐 종교개혁의 중심을 피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언론에 소개되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인간의 죄와 그 죄의 해결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의 언급은 전혀 없이 단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아주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어둡고 캄캄한 영적인 세계로 우리시대를 다시금 몰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1세기, 우리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을 논하는 글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힌 칼빈과 루터가 일어나 자신들의 안타까움과 울분을 토할 형편이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개혁자들은 인간의 잘못된 형식과 제도로 말미암아 놓치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외쳤고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성경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한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그리스도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참된 개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언급하지 않고서 불가능합니다. 창조주 되신 그 분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신 이유 그 자체가 인간의 죄와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언급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쪽자리 비성경적인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용서함과 자유와 회복이 바르게 언급되지 않으면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듣기에는 따뜻하고 거부감 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요 그분의 삶에 대한 부정(不定)입니다. 인간의 죄와 그 죄의 용서함을 위해 하나님 되신 그 분이 이 땅에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과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진실하고 바르게 걸어 가야됨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확인하는 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가장 바르게 기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돌아보며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의 해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었고 그런 예수님이 개혁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가 빠진 모든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는 종교개혁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 소음을 뚫고 주님에게 집중하시기를...

thechoi82@yahoo.com

## 혼자서 결혼, 아예 혼자 살아간다...교회 사역 고민

### 뉴스위크, 지구촌에 확산되는 새로운 결혼문화, ‘독신혼’ 과 ‘나홀로족’ 소개

파트너가 없어도 결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늘어난다.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는 이탈리아 여성 라우라 메시(40)는 최근 어느 주말 혼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케이크와 드레스, 신부 들러리, 사진 등 구성은 다 갖췄다. 70여 명의 하객도 참석했다. 메시는 이탈리아 신문 라레푸블리카에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며 “

왕자 없이도 얼마든지 동화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이처럼 이성 파트너 없이 혼자서 결혼이나 독신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지구촌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WHAT IS SELF-MARRIAGE? ITALIAN WOMAN WEDS HERSELF IN LAVISH CEREMONY).

물론 ‘솔로가미(sologamy)’라고 부르는 독신혼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결혼이란 당사자 2명(또는 그 이상)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시에겐 독신혼이 참 쌀쌀하면서도 달콤한 의미를 갖는다.

메시는 38세에 12년 동안 사귀던 남자와 헤어진 뒤 독신혼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40세가 돼서도 파트너를 찾지 못하면, 자기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친구들에게 선언했다. 그녀는 독신혼 예식을 마친 후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미래를 함께 계획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난다면 당연히 행복한 것



없이 산다는 뜻이다. 10년 전엔 그 비율이 39%였다. 특히 35세 미만의 성인 사이에서 변화가 가장 컸다. 61%가 ‘혼족’이다. 10년 전엔 그 연령층의 56%가 독신이었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61%로 늘었다.

55세 이상의 경우는 파트너와 함께 살 가능성이 크지만 그 연령층에서도 독신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중년의 미국인이 ‘더 나은 반쪽’ 없이 살아갈 확률은 10년 전보다 32%나 높아졌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독신일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43% 대 40%). 전문가들은 일리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저술가이자 부부관

### 독신혼, 개인적 성장의 ‘여정’ 공식화 욕구에서 비롯

### 미성인 42%가 ‘혼족’ ...독신선택 주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이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남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다.”

독신혼이 증가 추세다. 이 개념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네 여자의 ‘성 담론’을 소재로 큰 인기를 끈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2003년 시즌 한 에피소드를 계기로 대중문화에 진입했다. 사라 제이카 파커가 연기한 극중 인물 캐리 브래드쇼의 독신혼은 대체로 혼자만의 의식이었다. 하지만 그 이래 실제로 독신혼 예식이 여러 건 거행되면서 작은 추세를 형성했다.

사진작가 그레이스 겔더는 영국 신문 가디언에 자신의 독신혼이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을 공식화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이 중인이 되는 독신혼 예식은 성숙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다지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메시는 자신의 독신혼을 기념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달린 댓글 중 다수가 비판적이거나 당혹스러운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겔더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친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몇몇 친구는 농담조로 내가 자아도취적이라고 꼬집었다. 자기 자신과 결혼한다고 발표하면 자기에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신혼이 얼마나 자아탐닉적인지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난 내 선택에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독신혼이라고 하면 흔히 아주 슬프다는 반응이 나온다. 독신혼은 자신의 외로움을 합리화하려는 속 보이는 핑계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에겐 개성의 확인인 동시에 ‘사회적 규범이 내 행복을 좌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활동하는 작가 에리카 앤더슨은 지난해 독신혼을 올렸다. 그녀는 온라인 매체 ATTN에 “독신 여성이 증가한다”며 “우리는 경제적 혜택을 얻으려고 남자에게 기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녀는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에 “사회적 메시지가 무엇이든 그것을 무시하긴 힘들다”며 “그 메시지 중 하나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살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신혼이라고 해서 남자와 사귀지 않는다가나 금욕주의를 실천한다는 뜻은 아니다. 영국 여성 소피 태너도 2015년 메시처럼 독신혼을 올렸다. 그녀는 텔레그래프에 가끔 ‘진한 데이트’를 갖는다고 말했다. 자기 자신과 결혼하는 여성 대다수처럼 태너도 독신혼이 독신주의 삶에 헌신한다기보다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서로 맞지 않는데도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

보다 더 외로울 수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배우자보다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알게 되면 더욱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 또 나홀로로 삶을 즐기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알게 된다. 이상적인 배필이 자기 자신인데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이상을 찾으려다가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

독신혼은 많은 비판을 받지만, 전통적인 두 사람 사이의 결혼보다 더 나은 면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다. 이혼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다.

한편 자의로 나홀로족이 되는 미국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2%는 ‘혼족’이다. 파트너

게 전문가인 폴레트 커프먼 서먼 박사는 “자녀가 없는 여성 주택 소유자가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여성이 점차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남자와 결혼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성인이 독신일 가능성은 각각 37%로 히스패닉의 46%와 흑인의 62%보다 훨씬 적었다.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이 꼽힌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 없는 미국 성인의 51%가 혼자 지낸다(10년 전엔 46%). 전체적으로 직장을 가진 미국인 중 독신인 비율은 38%다.

서먼 박사는 경제 문제 외에도 사람들이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가 많다고 지적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kcpre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www.rptseast.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      |    |            |
|------|----|------------|
| 대신학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선교학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    |            |
|-----------|----|------------|
| 대목회학석사    |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기독교교육학 석사 |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선교학 석사    |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여교역학과    | 3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 교회 안전 확보에 마지막 경종

〈1면에서 계속〉  
교인들은 대부분 “설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고는 대도시에 있는 대형교회이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신다고 믿는 교회들”에서 안전사고나 총기나 무기를 든 인명 상해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친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교회 안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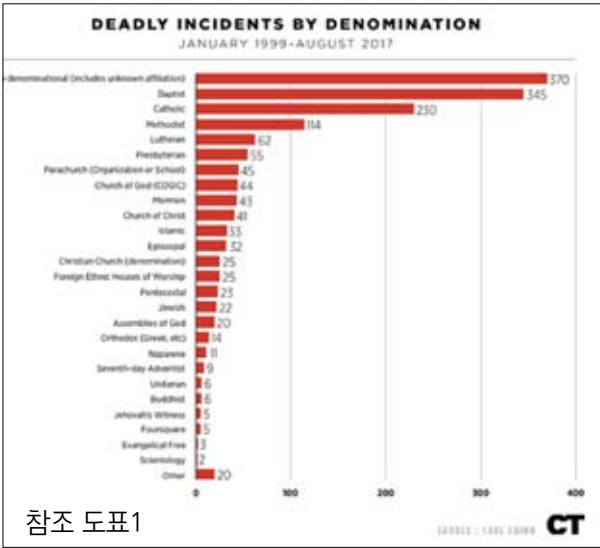
따라서 그는 이미 2015년이 교회들과 담임 목사들에게 가해진 최악의 시기였다고 제기한 적이 있다(Violent Incidents at Churches Are Rising: Statistics from 2015 are the highest yet seen). 무려 246건의 사고들과 동시에 76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교회의 안전불감증을 깨우는 기회였지만, 아직까지도 교회는 총격을 통한 사건의 사각지대 같다고, 친은 안타까워한다. 2015년 당시, 미국인들이 경악한 사건은 찰스턴 총격 난사 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이었다(참조 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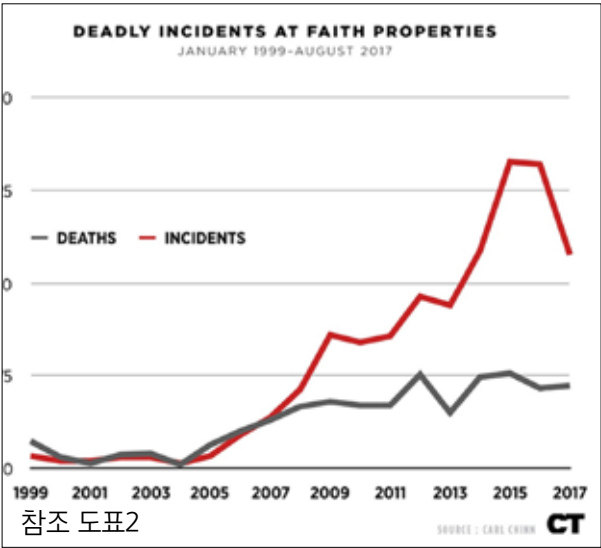
“미국인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고, 진정으로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CT의 자매 매체(Church Law & Tax)에서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세계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미국 역사에서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교회들에게 교인들이나 외부 용역을 통한 잘 훈련되고 구비된 안보 팀 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예배나 교육 중에, 한 명은 건물 외부에서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교회 안에서 의심



참조 도표1



참조 도표2

백악관 역시 2013년에 총격 사건과 같은 무자비한 폭력 사건들을 대비할 수 있는 대처 방안(Guide for Developing High-Quality Emergency Operating Plans for Houses of Worship, “run, hide, or fight” when gunmen attack)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회에 알렸다.

결론으로, 이처럼 미국 교회가 처한 비극을 대처할 모델을 느헤미야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4:9)”라고 말해준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소그룹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기도하며, 찬양과 기도, 간증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분명한 소그룹이 성경적 소그룹이다. 모일 때마다 또 흠어질 때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야말로 진정한 성경적 소그룹인 것이다.

### 다섯 가지 목적의 균형

이처럼 성경적 소그룹은 이 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소그룹과 원천적이고 기초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성경적인 토대와 목적이다. 우리의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이 다섯 가지 목적에 언제나 동일한 노력으로 헌신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적 소그룹은 모일 때마다 이 다섯 가지 목적의 균형을 위해 서로를 돌아보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분명한 성경적 목적과 방향성을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천국과도 같은 소그룹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결론으로, 교회공동체는 조만간 독신혼이나 나홀로족에 대한 사역을 감당해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성경적인 관계 즉 결혼과 서로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역설해야할지를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해나가야 한다.

## 소망 칼럼

###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도 달라야 한다. 교인 중에는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신자를 의미한다. 교회만 다니면 누구나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신자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참 신자로서 교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참 신자는 교인에 비해 적어도 다음 몇 가지는 달라야

한다.

첫째,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눈은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다(마7:1-5). 세상 사람들은 남의 작은 허물만 보지만 성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기의 허물을 보아야 한다.

둘째, 듣는 귀가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사람의 말만 듣는다고 했다(딤후4:3-4).

셋째, 말하는 입이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능이다. 사람의 말은 단순한 대화의 기능 외에도 의사소통의 능력,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능력, 창조력과 통치력 등이 있다. 말 한 마디가 기적을 만들고 행복을 만든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누구에게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넷째, 사는 목적이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했다(고전12:13).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전10:31).

다섯째, 기도 제목이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내용이 교인과 달라야 한다. 교인들은 주로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드린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와 다르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무엇을 드리리이까?” 라고 기도한다.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에서 성화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더욱 닮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예수 믿고 변하여 새사람 되어야 한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내가 달라져야 가정이 달라진다. 내가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진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교인들과도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똑똑하고 약고 영리하고 욕심 많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사람이 지나치게 똑똑하고 영악하면 친구가 없다고 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는 좀 바보이어야 한다. 바보는 꾀를 부릴 줄 모른다. 바보는 거짓말을 못한다. 바보는 착하다. 바보는 진실하다. 바보는 정직하다. 바보는 교만하지 않다. 바보는 항상 말없이 일만 한다. 바보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아니한다.

nammicj@hanmail.net

## 초대교회 통해 소그룹 방향성 배운다!

〈1면에서 계속〉  
당시의 소그룹은 지원, 사역, 배려, 배품, 구제 등등, 서로의 섬김을 통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데 헌신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었다. 단순히 나의 영적, 또 육적 필요를 채우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활용해 서로의 집을 나뉘지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 소그룹의 모습인 것이다.

여러분의 소그룹 멤버들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특정 사람에게 섬김이 집중돼있지는 않은지? 서로에게 사역하는 소그룹이 이 세상과 구별된 성경적 소그룹이다.

대교회의 소그룹이 전도에 힘썼음을 잘 알게 해준다. 소그룹은 때로 구성원 혼자로는 다 감당하기 어려운 전도의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의 장이 될 것이다.

전도하는 대상을 향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든든한 동지들이 바로 소그룹 구성원들이 되어 하는 것이다. 각자가 전도하고 또 그룹이 함께 전도할 때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소그룹은 단려있는 소그룹인지? 아니면 전도하는 소그룹인지? 전도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소그룹이 진정한 성경적 소그룹일 것이다.

|                                                                                |                                                                                      |
|--------------------------------------------------------------------------------|--------------------------------------------------------------------------------------|
| 전도하는 소그룹                                                                       | 예배하는 소그룹                                                                             |
| 전도는 초대교회 소그룹이 기쁨으로 감당했던 중요한 활동이었다.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7)는 말씀은 초 | “그들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행4:42, 47) 사도 행전을 통해 발견하는 소그룹은 함께 예배하는 |

## 혼자서 결혼, 아예 혼자 살아간다...교회 사역 고민

〈2면에서 계속〉  
“실용적이고 정서적인 경우도 많다.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이유에서 데이트를 한다. 어떤 사람은 재미를 추구한다.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반면 일부는 좀더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

서면 박사는 자신을 ‘로맨틱’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지만 남녀 관계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혼이 모두에게 적합한 남녀 관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결혼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인생의 전기가 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부목사 청빙

### 1. 자격

정규신학교 졸업자로서 목사안수받은자  
영주권자 이상 신분소지자  
영어 소통이 원활하신 분

### 2. 제출서류(반환하지 아니함)

이력서(3개월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자기소개서(간증 및 소명)  
추천서 2인

### 3. 제출기한 및 보낼 곳

2017년 12월 15일까지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벅스카운티장로교회)  
1550 Woodbourne Road Levittown, PA 19057  
Email: pwkim529@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KAPC)  
담임 김풍운 목사

본 교회는 창립 33년 되는 LA 소재 교회로 투철한 소명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갈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 1. 부 목사님 (Full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이상 졸업자로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40세 미만의 기혼자
- 한국어외 영어 소통이 원활 하신 분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 2. Youth Group (중고등부) 전도사님 (Part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나 재학중인 분
- 영어 설교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분

#### 3. 찬양 리더 (Part Time)

- 찬양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으로 기타나 키보드로 찬양 리더가 가능한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 사진)
- 자기 소개서 (신앙 간증 및 목회 소명)

####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서류 마감: 11/30/2017 까지
- 제출방법: 모든서류는 메일로보낼것

Email: lalkcyoon@gmail.com  
lk0085@sbcglobal.net

## 사랑한인교회

2801 W. Temple St. L.A., CA 90026  
담임목사 하재식



## 목양칼럼

###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이름

이름은 한 개인에 대한 인격의 집합이요, 개인을 대신하는 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부르실 때, 그 세속적인 이름을 허물없이 사용하십니다. 즉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흠결 많은 인생 아브람의 이름을 거리낌 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11년이 지난 후에 창17장에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람이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그 것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그 새 이름을 받을 만한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아굽의 이름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창25:26)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인데도 그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목에서 형에서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 아굽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 비로소 이스라엘(창32:28)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하사받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름을 그가 죽는 순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즉 새 이름인 이스라엘은 창32:28절부터 50장까지 29번,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43번이나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수많은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악한 황제인 네로나, 또는 독재자 히틀러나 스탈린 등등 말입니다. 그 이름들은 전 인류 역사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악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습니다. 그 받은 이름은 영원토록 자신을 대신하는 품격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의미로 주어졌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작은 간증입니다만, 저는 십대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누가 제 이름, 평우야! 하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촌스런 이름, 누구한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 제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칠십이 넘은 나이에도 그 때의 그 고요하지만 한없이 위엄 있는 그 음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없이 무력하고 소망이 없을 때 저

를 불러주신 제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더더구나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주님이실 때 그 감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개인에게 찾아오심을 뜻합니다. 개인을 찾아오심은 개인을 오래전부터 주목하셨음을 의미하고 관찰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분은 수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기록하였다가 그 이름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임명해야 할 대상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적합한 사람을 찾아 맡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고로 평소 대통령의 아심을 가진 정치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돕는 자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도 비슷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에게도 그 많은 자리를 채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채우셔야 할 자리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은 이름에 걸 맞는 삶을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름은 한 개인의 전 인격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은 영원토록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로마의 남쪽에 위치한 오스티엔세(Ostienze)를 갔습니다. 거기는 기원전 로마의 어떤 부자가 이집트에서 거대한 피라미트를 보고 감동을 받아 자신의 무덤도 피라미트로 만들었습니다. 물

론 규모는 한없이 작지만 말입니다. 돈이 있다고 자신의 무덤을 로마 한편에 거대하게 만들 수 있었던 로마는 역시 대단하다 싶습니다.

오스티엔세 성벽 옆 언덕 담 벽에는 나치시대 저항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한 일을 기념하는 글을 새겨 벽에 붙여놓았고, 또 미국과 캐나다 연합군이 로마를 나치로부터 해방시킨 일과 그 부대의 최고 책임자인 장군의 이름이 기록된 돌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슨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의 이

름을 기록합니다. 3천구의 묘지들마다 이름들이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모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묻히려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문혔을 것이고, 그렇다면 남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알아달라는 것일 텐데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세월의 풍화작용은 이름의 의미까지 갉아먹게 했습니다.

묘지의 동쪽으로 나있는 통로를 따라 가면 좀 더 넓은 공간에 무덤들이 안온하게 있습니다. 통로 안에 있는 묘지들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조성되었는데

군요. 그러나 대부분의 묘지석은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네 삶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묘지 동쪽 끝에 평토장에 묘비를 세운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가 바로 영국의 낭만주의를 이끌었던, 삼대 시인 중 한 사람, 키이츠(John Keats 1795-1821))의 묘지입니다. 그는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따뜻한 이태리로 왔다가 스물여섯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Here lies one whose was write in water(이름을 물위에 쓴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다). 이름을 물위에 쓴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의 하잘 것 없음을 치부하는 애기이겠습니다만, 놀랍게도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이름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철이 들었을까 싶은 스물여섯 살을 살았던 총각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름이라는 것, 그것은 생각할수록 신비하기만 합니다. 한 때 이름의 의미에 관심이 컸을 때 작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했습니다. 이름이 좋아야 출세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바꾼다고 모든 일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작명해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물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름에 걸 맞는 삶을 사시나요?

chiesadiroma@daum.net



시인 카이츠의 묘지



영국 시인 셸리의 묘지

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길을 따라 들어가면(Via Caio Cestio)외국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는 로마에 살다 죽은 유명한 사람이 묻혀있습니다.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대략 3천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 중에 유명인들이 누구나고 했더니 몇 사람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키이츠(Keat), 셸리(Shelly), 그리고 독일의 시성 괴테의 아들입니다. 그 외는 설명하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 푸/른/초/장

### 조응철 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 40일간 주리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된 예수님은 참으로 바쁜 인생을 하셨습니다. 하루의 하시는 일, 복음 전파의 일이 고되고 분주하셨지만 저물어 해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시는 고된 일, 분주한 일을 해가져서 쉬셔야 할 때도 하셔야 했습니다.

이런 분주한 생활 속에서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는 경건 생활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분주하신 생활을 하던 할수록, 사람은 위에서부터 공급해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심령이 고갈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복음서에 보면 때때로, 산으로, 바다로 들로 기도하러 가신 내용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그가 항상 시간을 만들어 기도했다고 한다면 약하고 죄 많은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분주히 일에 쫓기는 사람!! 어떤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크거나 작거나 맡아 있는 사람!! 병약한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조용히 하나님의 교통인 기도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감화력이 없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없는 사람은 교회 일이나 자기 하는 사업에 큰 성공을 못합니다. 일상생활이 기도화한 사람의 생활은 죄를 이기고 경건의 능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한적한 곳이라는 제목으로써 예수님의 기도생활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공중을 대표해서 기도했다는 흔적은 별로 없으나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일이 산재해 있고 공중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많았지만 홀로 아버지인 하나님과만 계시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기도란 시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 둘이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날 대중과 함께 성가대의 송영에 맞춰 묵기도를 드리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시서를 교독하고, 헌금하고 대표자의 기도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광고를 듣고 하는 것 꼭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규례에 따라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예배를 드린 날로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리의 경건생활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성경봉독이 중단되어서는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

기도의 경건생활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새벽은 새벽인데 그 새벽은 오히려 미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침상에서 깊은 잠에 빠져져 있는 이른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잠 된 다윗의 자손으로써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를 찾아 갔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께 아뢰어 새 능력을 얻고자 은혜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맑고 깨끗해야 하고 또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신선을 위하여 또 신성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떠나서! 기도 시간을 빼

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쁨과 자원은 갑갑한 맘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일입니다.

2. 둘째로 예수께서 기도하신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신 이적을 행하시고! 사랑의 봉사를 하시고! 권위 있는 교훈으로 사람들을 감화하신 그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이 한적한 곳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 거리를 떠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 외딴 동산에 가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주의 산만한 장소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

는 것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과만 단 둘이 만났 은밀한 장소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식구들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홀로 만난 밀실을 꾸밉시다! 죄로 인하여 고달픈 분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과만 마주앉을 기도의 밀실을 만드십시오! 자신의 병에 시달리는 분께십니까? 우리 육체를 지르시고 모든 건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만 마주 앉을 방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기도의 밀실에서 하나님과만 홀로 마주앉아 의논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했고 큰 은혜 받았습니까. 야곱은 압목이라는 기도의 밀실에서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 승리의 이름을 받았습니까.

이사야는 성전이라는 기도의 밀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뵈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는 기도의 밀실에서 병이 나았고 15년을 더 살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기도의 밀실을 찾았더니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세의 시내 산 40일 기도는 하나님의 그림자도 보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밀실을 찾아 성전에 들어가다가 얇은베일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겻세마네의 기도의 밀실에서 십자가를 지실 위대한 능력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밀실을 찾아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찾아 갑시다! 기도하기에 좋은 곳에 찾아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가집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오히려 미명마다! 영원히 가져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기도로서 새 능력을 얻으십시오! 기도하는 자! 날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찾아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드리는 자가 큰 복 받을 자입니다.

## 한적한 곳 (마가복음 1장 35-39절)

마주앉는 그 시간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신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날의 새벽은 안식일 후 첫 날 새벽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생활의 규례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회당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지난 첫 날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엎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은 대중예배의 규례대로 하시고 다른 날은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입니다. 우리는 회당과 함께 어떤 격식대로 예배하는 예배당에는 그 규례대로 주일마다 참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날마다 새벽마다 예수님과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간을 통해서 매 새벽마다 은혜의 보좌에서 거룩한 은혜, 새 능력을 얻으신 것같이 우리도 예수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복음서를 깊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날마다 새벽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도! 새벽

고는 여러분의 영혼을 신선하고도 능력 있게 만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을 위한 첫째 되는 길, 또 제일 좋은 길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여 영혼이 날마다 새롭고 능력을 얻는 자가 또한 육신적으로도 복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 유혹을 물리칠 능력,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능력, 악한 습관을 끊는 능력, 새 평안을 얻는 비결은 기도하

기 위해서 무리들을 떠나서 조용히 홀로계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의 생활의 규칙을 통해서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의 밀실에 들어갑시다!! 은밀한 기도는 또한 은밀하게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사업이 분망해서 일에 쫓기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밀실에 들어가! 하나님과만 단 둘이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근심과 격정이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과 홀로 앉아 얘기할! 의론할 기도의 밀실을 만드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 못할 중대한 문제 부딪친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사탄송배지였던 사람이 전하는 할로윈과 사탄교의 연결성

지난 9월 18일 발표된 Live Science에 의하면 매년 많은 도시 경찰들이 할로윈 전부터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경고하며 특별히 광대모습을 한 사람들을 조심시키곤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할로윈 때마다 무섭고 잔인한 영화를 카피한 잔인한, 특별히 아이들을 목표물 삼은 광대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서운 영화 제작으로 유명한 스티븐 킹(Steven King)의 “It”이라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지난 9월 8일 미국에서 다시 제작되어 모든 주류 극장으로 출시되었는데, 이 영화에서 광대의 모습으로 가장한 악마가 어린이들을 빨간 풍선으로 쫓아서 하수구 쪽으로 끌어들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목표물 된 영화로서 보기 끔찍하고 섬뜩한 영화이며 어린이뿐 아니라 청소년 어른들에게도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끼치는 일은 이런 일들을 모방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경찰들이 CBS 뉴스에 알려준 바에 따르면, 리미츠 도시 하수구에서 20개가 넘는 빨간 풍선을 찾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에 노스다코타에서는 빠가지 자를 수 있는 보아 칼을 휘두르는 광대가 어린이들을 목표물 삼았다가 다행히 잡혔습니다. 9월에 보도된 호주뉴스에서는 할로윈 전에 광대로 변장하여 어린이를 목표삼은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기를 어떤 괴상하게 생긴 광대가 아이들을 숲 속으로 유인하려고 시도하다가 지나가던 학부모들에게 들켜서 실패하고 도망쳤다는 보고가 있었고, 바로 그해 9월에 테네시 주 서밋츠빌에서 한 십대는 칼을 휘두르는 광대를 보고 도망쳐서 간신히 살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었다는 경찰 보고입니다.

그 외에 리포트 되지는 않았

어도 캘리포니아,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특별히 할로윈 전후로 이루어지는 섬뜩한 일들이 청소년들 주위에도 여러 경위를 통해 계속 일어나기에 할로윈 파티같은 것들을 각별히 조심할 것을 경찰들은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할로윈과 사탄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결과요?

25년간 사탄 송배자였을 뿐 아니라 사탄송배자 리더 중에

사탄의 실체를 알리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사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할로윈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그의 간증문들을 모아 간결히 번역/정리하였습니다.

“내 생각은 1987년 10월 31일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나는 지구상에서 최고로 악마적인 결혼식을 치렀다. 우리 결혼식에는 세상의 모든 악령들과 귀신들로 가득 채워진 상테



서도 설립자들 다음 3인으로 불릴만큼 큰 영향력이 있던 존 라미레즈라는 사람이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탄송배가정에서 탈출한 후 다음과 같이 할로윈에 대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여,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할로윈 흥내를 내는 그 순간, 사탄의 영이 당신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이 할로윈을 어떤 형태로든 참여함과 동시에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고유의 영적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까지도 악마를 기념하는 희생제사로 바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당신은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원수와 협정을 맺었고,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자녀로 바꾸는 희생 제사를 바로 사탄에게 바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무서운 희생 제사를 매년 한번씩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참고로 존 라미레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그의 패션(passion)은 사람들에게

에서 결혼식을 행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식 종소리는 지옥문까지 들렸다. 우리 결혼식 때 아는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의 아내도 마녀였고, 나와 내 아내의 가정은 둘 다 사탄 송배자 집안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할로윈은 사탄송배자인 우리에게 매우 특별했다. 우리는 일년 중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를 늘 학교고대했는데, 이유는 할로윈 때마다 할로윈을 축하(celebrate)하고 기념하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따르는 어둠의 권세와 영적 힘은 말로 할 수 없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이었다. 할로윈날은 다른 일반적인 364일 밤과 매우 달랐다. 할로윈이 사탄교에게 주는 의미는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내가 성도들에게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생명의 능력을 나누는 것처럼, 할로윈은 악령들에게는 어두운 세계와 죽음을 상징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할로윈 계절이 오면 우리 악마 송배자들은 악마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나는 할로

윈의 자정을 준비하기 위해 하루 종일 자면서 휴식을 취하고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나는 이 세상에 지옥을 출연시킨 듯했다...(삭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나는 너무 놀라고 매우 슬펐다. 왜냐하면, 일부 교회에서는 할로윈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대신 추수의 날(harvest)라고 부르며 Trick or treat 대신 Go & Stop을 부친 후 사탕과 풍선껌을 준다. 모양만 바뀌었지 의미는 고스란히 남겨진 이런 교회행사를 보면서 어쩌나 내 마음이 무겁고 슬픈지 모른다.

사탄송배자로 있었던 나로서 할로윈은 그 어떤 모습도 따라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할로윈 자체를 인정하는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가장 좋은 것은 할로윈 자체를 그냥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최고로 낫다.

만일,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할로윈날 전도를 목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할로윈 날에 구원 받지 못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초대해 아이들과 어른들이 팝콘과 음료수를 들고 성경적인 영화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 사랑의 역사적 밤으로 삼는 것은 어떨까? 또한, 초대된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할로윈의 기원과 할로윈의 위험성에 대해 폭로하는 것도 유익한 저녁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기념해야 할 유일한 추수는 영혼의 추수다... 할로윈은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악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나는 실제로 이행한 사람이었다...”

결론을 맺습니다. 비록 할로윈의 시작은 कै톨릭 교회에서 “성도들의 거룩한 전야 밤”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사탄교의 설립자 Anton Lavey에 의해 사탄교의 3대 할리데이로 만들어져 지금은 온통 사탄적인 요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깨어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루터의 종교개혁 성공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달이 한 몫을 했다고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김난경 권사

**A:** 우리는 현재 모두가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00년 전만해도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보통 성도들이 개인 성경을 가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1500년 동안 수도원 수사들은 성경을 일일이 필사해야 했습니다. 주로 식물 파괴루스나 동물가죽에 썼는데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전문가를 시켜 필사하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만불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제작하는 데는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었고 성경전체를 하나 가지려면 거의 농장 하나, 작은 성 하나를 팔아야 할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권 소유하는 것은 왕이나 엄청난 부자나 귀족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성경은 성전이나 왕궁에 하나씩 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교황청이 4세기 말에 만들어서 중세교회가 천년이 넘게 사용했던 불가타 성경(Vulgate)은 라틴어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직자나 극소수의 학자들 외에는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교황청은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군중이 무지해야 통치하기가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कै톨릭 사제들이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해주는

### 첫 영어번역은 위클리프성경...인쇄술 발달로 성경 번역 확산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세기 교황청이 저지른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십자가 전쟁인데 그 잔혹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교황청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각자가 말씀을 직접 읽고 검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교황청이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묵과하고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성도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터가 태어나기 150년 이전에 종교개혁의 계명성과 같은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해주기 위해 옥스포드의 학자들을 모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훗날 최초의 영어 완역본 “위클리프 성경”이 됩니다. 그러나 1382년, 교황청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그가 죽은 뒤 몇십년이 흐른 뒤 그의 적들은 그의 시신을 파내어 화형에 처하고 그 재를 강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루터는 나중에 바르트부르크 성(Wartburg Castle)에 숨어 지낼 때 수역을 기르고 이름도 바꾸고 신분 세탁을 한 후에 10개월 정도 숨어 지내면서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후 10년 뒤인 1534년에 신구약 성경이 모두 완성되어 출간한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무려 50만 권이상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1440년대 요한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8-1468)라고 하는 독일의 기술자가 금속활자를 발명해서 인쇄술을 혁신시켰습니다. 수십 년 뒤에 말한 루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뒤 무렵에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인쇄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빠른 시간 내에 민중들에게 지지를 얻으면서 확산되는 데는 이 인쇄술의 발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기 나라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사제나 교황의 중재 없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태국 북서부의 부족들



태국 북서부 부족들은 주로 나 지 막한 산 구릉지를 따라 거주한다. 그들은 몬 크메르어(語)족과타이어(語)족에서 유래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 북서부 부족들은 대개 자신들의 부족언어와 북부 타이어, 2개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주로 북부 타이어 문자를 사용한다.

본래 북서부 부족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살았지만 한족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점차 남하하기 시작했

고, 이동 경로에서 부딪히는 많은 종족들을 정복했다. 10세기경 그들 중 많은 수가 태국에 정착했다. 태국 북부지역은 원래 6세기에 건국된 초기 몬 왕국의 영토였다. 13세기에 몬 왕국은 타이족에 의해 멸망했고, 이로 인해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북서부 지역들은 방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었다.

오랜 세월을 걸쳐 태국은 잦은 정부 교체와 군사 폭동을 겪었고 전쟁과 재이주(移住)로 인해 태국 북서부 부족들은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경험했다.

#### 삶의 모습

대부분 부족들은 태국 북부의 산

악지대에 살면서 화전(slash and burn)농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속적인 화전법의 이용으로 인해 이 지역에 자연 서식하던 열대 상록림 중 상당 부분이 파괴됐다. 결국 부족민들은 계속해서 다른 마을로 옮겨 다녀야 했다. 태국 정부는 농민들에게 평지로 이주해 관개 논에서 쌀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화전농업을 하고 있다.

부족들에게 쌀은 가장 중요한 작물이다. 수수와 양귀비도 경작된다. 발벼(Dry rice)를 경작할 때는 쟁기나 황소를 쓰기보다는 "땅파는 막대기(digging stick)"를 이용한다. 자체 소비를 위해서나 판매를 위해 논벼(wet rice)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물소가 끄는 원시적인 목재농기구를 이용한다.

오랫동안 아편은 부족들에게 현금을 얻기 위한 주요 원천이었다. 그러나 아편거래 역제가 심해지면서 정부는 돼지 사육과 후추 재배 등을 권장하고 있다.

부족 마을들은 논으로 둘러싸인

다소 웅기된 평지나, 도로변의 고지대에 위치해있다. 마을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옥들이 있다. 보다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튼튼한 마호가니 가옥에서 사는 경우도 있으며, 이 집은 고상식(땅 위에서 높이 지어진 형태) 가옥에다 판자 마루와 타일로 된 지붕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지붕과 흙마루로 된 대나무 가옥에서 산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조직은 불교 사찰이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 간의 단합을 상징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사를 제공한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매우 정중하며, 예의 바르고, 호의적이다. 가족은 사회 형성의 기본 단위가 된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른 사회 행동방식을 배운다. 즉 상사(上使)나 나이 든 어른들에게 존경심을 가지면서도 또 동시에 독립심과 자립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북서부 부족들의 사회는 아주 조

연령, 직업과 부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예컨대, 시골의 농부들은 장인들이나 상인, 도시 공무원들보다 낮은 계층으로 취급되며 승려들은 독립적인 계급으로 인식된다. 특히, 루(Lu)족은 솜씨 있는 은 세공업자들이다. 남자들은 유명한 루족의 검(Lu sword)을 만들며, 여자들은 방적과 자수 등에 뛰어나다. 크무족(Khmu)은 능력 있는 마술사들로 평판이 높다.

#### 신앙

불교는 기원전 329년 태국에 소개됐다. 야오족을 제외한 많은 부족들이 불교 요소들을 전통적인 정령신앙(애니미즘)과 혼합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미신적인 신령과 물건들에게서 도움을 구한다. 그들은 "피(phi)"라고 하는 영혼들에게 제물과 제사를 드려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지역의 부족들 중에서, 타이족이나 라오족들은 영적으로 크무족들을 가장 존경하는데, 이는 크

무족이 다른 부족들보다 대지(大地)와 그 땅의 영들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필요로 하는 것들

각 부족마다 적어도 하나의 선교단체가 그들을 섬기고 있지만, 니옹족(Nyong)이나 쿤족(Hkun) 가운데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없다. 이 모든 부족들 가운데 일할 만한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현재 이 부족들 가운데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 완역본을 가지고 있는 부족은 없다. 다만 니옹족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성경의 일부는 가지고 있다. 그들의 언어로 된 추가적인 자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족 여성과 아이들 중 많은 수가 매춘을 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장모 노렸던 텍사스 총기난사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26명을 숨지게 한 미국 텍사스주 총기난사범 데빈 패트릭 켈리(26)의 범행은 장모에게 앙심을 품고 벌인 계획범죄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그는 군 당국의 행정 처리 잘못으로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 지역책임자 프리만 마틴은 6일 기자회견에서 켈리가 가정불화를 겪었으며 장모 미셸 실즈(54)에게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실즈는 켈리가 총을 난사한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일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는 인종적 동기가 없고 종교적 신념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마틴은 켈리가 범행 당일 아침에도 실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가 장모에게 분노를 드러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가정문제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전날 USA투데이는 켈리가 지내는 텍사스 중남부 뉴브라운스펠스의 자택에 가보니 우편함에 장모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미 공군 북부 중이던 2012년 이혼당한 켈리는 2014년 전역 후 텍사스로 이주해 재혼했다.

마틴은 "그에게는 탄장 15개와 군용 소총을 갖고 교회에 오는 것 말고도 장모를 해칠 방법은 많았다"며 "(그 이상의) 목적과 임무를 갖고 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초 교인들까지 해칠 의도였을 것이라는 뜻이다. 사건 당시 장모는 교회에 없었다. 대신 장모의 어머니(처할머니) 톨라 화이트(71)가 현장에 있다가 숨졌다고 CNN이 전했다.

켈리는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쏘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는 머리를 비롯해 3곳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켈리는 앞서 도주 과정에서 주머니 쏜 총에 다리와 몸통을 맞았다. 그는 자살 직전 휴대전화로 아버지에게 연락해 "해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켈리는 범행에 사용한 AR-556 소총을 지난해 4월 뉴브라운스펠스 인근 샌안토니오의 상점에서 구입했다. 신원 조화를 통과한 정상적인 취득이었다. 하지만 그는 총기 휴대 자격을 얻으려다 거절당하기도 한 부적격자였다. 켈리는 군복무 시절 아내와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1년 구금 및 강등 조치를 받고 불명예제대를 했다.

공군 대변인 앤 스테파텍은 "(켈리가 복무한) 부대에서 켈리의 가정폭력 전과를 국가범죄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공군의 기록관리 오류가 켈리의 총기 구매를 도왔다"며 "전과가 제대로 공유됐다면 총을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켈리는 지난 4년간 총기 4정을 구매했고 최근까지 리조트 야간경비원으로 일했다.

전날 5~76세로 알려졌던 사망자 연령은 17개월~77세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20명으로 10명이 중태다. 현지 보안관은 "교회에 있던 사람 중 (죽거나) 다치치 않은 사람은 사실상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 작은 교회를 찾고 있다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작은 교회를 다니고 싶는데 적당한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음 주도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 돼요."

매주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신실한 믿음과 함께 정착만 한다면 심신을 다해 교회를 섬길 의지를 갖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지 못해 헤매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유목민 성도'들을 품을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 칼 베이타스(미국 코너스톤크리스천펠로십교회) 목사는 6일 '홀륭한 소령교회를 찾을 수 있는 7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미국 기독교언론 크리스채너티투데이에 기고했다.

먼저 베이타스 목사는 "대형교회가 하는 일을 규모만 줄여서 하려는 소령교회를 찾기 말라"고 당부한다. 소령교회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소령교회를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소개했다.

첫 번째 무조건 새 시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베이타스 목사는 "교회 시설이 낡거나 해진 것은 중요치 않다"며 "교회가 이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조금 낡아있다는 것은 방치가 아니라 교회가 그만큼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그저 인사를 잘하거나 선물을 잘 주는 교회를 찾지 말라는 것이다. 주자장에 사람이 가득하거나 공짜로 커피를 주는 교회도 실상은 정작 교인들끼리도 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건강한 교제 유무다. 베이타스 목사는 "교회에 왔을 때 당신을 맞아줄 '환영 담당자'가 없어서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예배 중 흘러나오는 음악이 훌륭한지, 홈페이지나 SNS 등이 화려하게 치장돼 있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찬양이 진정성 있게 드러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는지를 봐야 한다. 특히 베이타스 목사는 "홈페이지를 볼 때는 교회가 꾸준히 교회의 근황을 올리고 교인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한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거나 당신을 섬길 교회를 다니지 말고 당신이 뭔가 할 수 있거나 당신이 교회 밖의 누군가를 섬길 힘이 나게 하는 교회를 다니라는 것이다. 베이타스 목사는 "우리가 곧 교회다.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란 서로를 섬길 방법을 찾아가고 실제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삶의 흔적'을 찾으라는 것이다. 베이타스 목사는 "교회의 상황이 항상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교회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이라며 "작은 교회는 하나의 가족과 같고, 건강한 가족에게도 문제는 있기 마련"이라고 설명한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건강한 삶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좋은 교회라는 의미다.

#### 탈북자 10명 중국 선양서 체포

중국 선양(瀋陽)에서 3세 아기를 포함한 탈북자 10명이 체포돼 강제복송 위기에 처했다.

북한 주민의 탈북과 남한정착을 지원 하는 갈렙선교회 대표 김성은 목사는 5일 오전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4일) 오후 5시쯤 탈북자 10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신원 관촬서(경찰서)에 수감됐고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불법적인 탈북자들의 나이는 3세 아기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이들 중에 지난 해 8-9월 큰 흉수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난 함경북도 북부 두만강가에 위치한 회령 등에서 어렵게 살던 북한 주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흉수 피해로 먹을 음식과 생활 필수품 부족 등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탈북의 주된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탈북자들이 복송될까봐 무서움에 떨고 있다"며 "복송되면 사형,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구출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 목사는 "중국 정부가 최근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면서 테러, 폭동 등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 검문검색을 강화했고 탈북자 및 안내인(탈북



브로커) 검거에 적극 나서 탈북 루트까지 막힌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론 뉴스에 취약한 탈북자들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안내인들을 따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잠입했다. 이들은 라오스, 태국 등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탈북자들은 "안가에 숨어 있으라"는 안내인의 지시를 받고 중국 선양 인근 안가에서 대기하다 갑자기 나타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탈북을 인도한 안내인도 함께 붙잡혔다. 또 다른 안내인의 신고로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주 중국 우리대사관은 중국 정부를 통해 탈북자 10명의 안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그동안 문제인 정부나 종교계가 사드 문제, 여러 안건으로 중국에 탈북자 보호 문제를 제기하는데 신중했다"며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이고 인권 문제로 다뤄야한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이어 "탈북자들은 헌법상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며 "정부와 언론 등이 빨리 손을 써 탈북자들이 복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오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보호 문제를 꼭 비중있게 다뤄 달라"고 덧붙였다.

#### 9·11테러 현장서 500m…트럭 돌진 테러

미국 뉴욕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배후로 추정되는 트럭 돌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9명이 죽거나 다쳤다. 중동에서 거점을 잃은 IS가 세계 주요 도시에서 추종자들을 더욱 부추겨 테러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CNN방송 등은 31일 오후 3시쯤 뉴욕 맨해튼 남부(로어맨해튼)에서 흰색 소형 트럭이 강변 자전거도로로 돌진해 8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뉴욕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로 평가된다. 범행에 사용된 트럭에서 영어로 'IS의 이름으로 (범행을) 한다'고 적힌 쪽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은 허드슨 리버 파크 앞에서 허드슨 강변 자전거도로를 달린 뒤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를 잇달아 치며 약 1400m를 돌진했다. 차는 스타이브센트 고교 인근 교차로에서 있던 스킵버스와 충돌하고서야 멈췄다. 이곳은 9·11 테러로 무너졌다가 재건된 원 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서 북쪽으로 500여m 떨어진 곳이다. 이 지역에서는 이날 저녁 헬리콥터 행진이 예정돼 있었다.

트럭 운전자는 차에서 뛰어내린 뒤 총기 두 자루를 들고 쏘는 시늉을 하며 도주했다. 그는 아랍어로 "알라를 위대하다"고 외치기도 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용의자는 경찰이 쏜 실탄에 복부를 맞고 제압됐다. 그가 소지한 총은 공기총과 페인트볼 총이었다.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현장에서는 6명이 즉사하고 2명이 병원 이송 중에 숨졌다. 사망자 중 5명은 고교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아르헨티나에서 뉴욕으로 여행을 온 관광객이었다. 같은 일행 중 6명은 부상을 입었다. 다른 사망자 1명과 부상자 3명은 벨기에인이다.

용의자는 29세 남성 세이폴로 하비블라예비 사이포브로 확인됐다. 그는 2010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미국 오하이오주로 처음 넘어온 뒤 영주권을 받아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와 뉴저지주 패터슨에서 생활했다. 패터슨은 뉴욕에서 북서쪽으로 19km 떨어진 뉴저지주 북동부 도시다. 사이포브는 포트 마이어스에서 트럭운전사로, 패터슨으로 옮겨서는 우버 운전전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밤 수사관들은 패터슨에서 거주했던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우버 측은 사이포브가 회사의 경력 조회 절차를 통과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사이포브는 현재까지 경미한 교통 위반 몇 건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사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한 시민을 표적으로 한 매우 비겁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병들고 정신이 아닌 인간이 공격한 것 같다"며 "중동 등지에서 몰리친 IS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욕 시민들은 "테러에 겁먹지 않겠다"면서 이날 밤 예정대로 헬리콥터 행진을 벌이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 미, 아동성범죄자 여권에 범죄사실 적시

미국 국방국무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여권에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문구를 인쇄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들이 아동



인신매매 및 성매매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일,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이 갖고 있던 기존 여권을 취소처리 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들이 새로 받게 될 여권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인쇄된다. "소지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법률에 의거한) 성범죄자에 해당한다"

미국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2016년 2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국제 메건법'에 의한 것이다. 이 법은 '메건법'에서 이름을 가져온 것으로 1994년 미국 뉴저지에서 이웃에 살던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된 7세 소녀 메건 칸카의 이름을 넣어 제정됐다. 당시 법안은 이미 2회의 아동 성추행 체포 기록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후 메건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성명과 주소, 범죄 경력 등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국무부는 "여권의 문장 때문에 범죄자의 출국이 제한되거나 여권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행 국가에 입국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국가는 중범죄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벨푸어 선언’ 1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가 유대계 영국 은행가로 시오니즘(유대 민족주의) 운동 후원자였던 윌러 로스차일드에



게 서한을 보냈다. 내각의 승인을 받아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민족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찬성하다는 내용을 담은 '벨푸어 선언'이다.

벨푸어 선언은 서구 열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건국을 공식 지지한 문서로 이스라엘 건국의 촉매가 됐다. 이후 1922년 국제연맹 승인 아래 영국과 프랑스가 아랍 지역을 분할해 통치했고, 영국이 맡았던 팔레스타인에 대한 위임통치가 1948년 끝나자 유대인 국가가 들어서게 됐다.

문제는 영국이 1915년 아랍 민족주의자들에게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는 일을 도우면 아랍 국가를 세우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소위 후사인-맥마흔 서한이다. 이후 배신당한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수차례 영국에 항의했지만 무자비하게 진압 당했다. '벨푸어 선언'이 역사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유혈사태와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이다.

벨푸어 선언 100주년을 맞아 2일 팔레스타인과 터키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 중동 여러 곳에서 영국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팔레스타인 서안의 나블루스에서는 약 4000명이 모여 영국 국기를 태운 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벨푸어 선언 당시 외교장관 아서 벨푸어의 모형을 태우는 화형식을 벌였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식민주의자 영국이며, 우리는 사과를 원한다"고 외쳤다.

##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 39-임두화(1886-1948)

임두화는 1886년 10월 25일에 평남 대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5세가 되던 1901년에 세례를 받았고, 4년 후 유학의 꿈을 품고 단신으로 시베리아 호에 의지하여 하와이에 도착했다.

그는 1908년 방화중 등과 함께 남가주 클레어몬트에서 학생양성소를 받기하고 이곳에 머물면서 1910년 소학교를 졸업하였다. 소학교를 졸업한 그 해에 미국 남감리교 계열의 대학 준비학교인 조지아 주 윌리스카의 린하트 대학에 입학하여 본 대학을 졸업하던 1914년에 그는 조지아 주 에모리 대학 문학부에 입학하여 1917년에 본 대학을 졸업하고, 이어 본 신학교에 입학하여 '한국기독교의 시작'이라는 논문을 제출하고 1920년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그는 YMCA 운동에 몰두하면서 해외선교에 관심을 가졌고 졸업 후 귀국하여 한국 민족을 향한 기독교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있었고, 미주 한인 동포의 기독교 선교에 투신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그는 에모리신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재학 중 전도사가 되어 기회가 되는대로 각 처를 다니며 한국의 정령을 소개했다.

#### 귀국

임두화는 그의 계획에 따라 1921년에 귀국하여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섬기게 된다. 1921년 그는 개성의 중앙교회 전도사로 재직하면서 윤치호가 설립한 송도고등보통학교의 교사를 역임했다. 이듬해 그는 집사 목사안수를 받았고, 장로목사 안수를 받던 1924년의 10월 24일에 이화여전을 졸업한 김브랜치와 결혼했다. 1925년 그는 감리교 협성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의 종교교회 담임을

고 재미동포를 만나 복음을 전했다.

이 때 그는 재미 한인동포에 대한 기독교 선교를 가슴에 품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귀국한 그는 1931년 이후 진남포 지방감리사로 활동하였는데, 1933년 변홍규 박사를 이어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는 그가 에모리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계획하였던 미주 한인 동포의 기독교 선교의 일환이었다.

1939년 본 교회의 총 수입은 1,250.3달러이었고 총지출은 1,233.69달러이었는데도 이듬해 교인수가 300명을 넘게 되어 교회 신축위원회를 조직하고 총 건축비를 4만불로 책정하고 3만불은 감리사와 감리교 선교부가 맡도록 하고 나머지 1만불은 본 교회가 헌금하기로 했다. 그래서 40명 회원의 부인보조회가 건축기금모금을 위한 만찬회를 개최하였다.

대동한글학교 교장은 임두화였다. 1938년에는 2명의 교사가 6세에서 14세 사이의 52명의 학생을 1학년부터 5학년까지로 나누어 초등학교 수준의 한글을 가르쳤다. 학기가 마치면 방학식이 있었는데 1938년 방학식 순서에는 조선 국가, 대강놀이, 연문의 제정, 대산놀이, 격언암송, 공자역사 등 한국문화를 상징하는 부분을 포함했다.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하와이는 계엄령하에 놓여 재산동결과 행동제한을 받았으나 한족연합위원회의 활동

정에 발송했다. 예배 진행 일체를 우리말로 하되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을 위해 설교만은 영어로 요약하는가 하면 사도신경이나 교독문까지도 영어로 인도했다.

1939년 본 교회의 총 수입은 1,250.3달러이었고 총지출은 1,233.69달러이었는데도 이듬해 교인수가 300명을 넘게 되어 교회 신축위원회를 조직하고 총 건축비를 4만불로 책정하고 3만불은 감리사와 감리교 선교부가 맡도록 하고 나머지 1만불은 본 교회가 헌금하기로 했다. 그래서 40명 회원의 부인보조회가 건축기금모금을 위한 만찬회를 개최하였다.

대동한글학교 교장은 임두화였다. 1938년에는 2명의 교사가 6세에서 14세 사이의 52명의 학생을 1학년부터 5학년까지로 나누어 초등학교 수준의 한글을 가르쳤다. 학기가 마치면 방학식이 있었는데 1938년 방학식 순서에는 조선 국가, 대강놀이, 연문의 제정, 대산놀이, 격언암송, 공자역사 등 한국문화를 상징하는 부분을 포함했다.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하와이는 계엄령하에 놓여 재산동결과 행동제한을 받았으나 한족연합위원회의 활동

비로 킨즈 병원에서 입원했다. 이런 가운데 그의 요청으로 헨리 G. 아펜젤러의 장녀인 앨리스 R. 아펜젤러가 1943년 7월부터 본 교회 주일학교 책임자로 부임했다.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수가 15명에서 연말에는 65명으로 늘어났는가 하면, 임두화 대신 자주 영어와 한국어로 설교하였고, 그간 중단했던 찬양대를 다시 시작했으며, 감리교 청년친목회를 조직하여 회원은 25명에 이르렀다.

태평양 전쟁으로 1944년 2월말까지 입대한 교인은 56명이나 되었다. 임두화는 다음달 11일과 1년 후 3월 11일에도 출정 군인을 위한 특별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들 중 이조지 중위가 유럽 전선에서 전사하는 비보를 받고 온 교회는 슬픔에 잠겼다.

1945년 6월 24일 주일에배에서 임두화는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작별 설교를 하였다. 그의 충성된 목회를 통해 교회 등록교인 수는 225명에서 391명으로 성장했다.

#### 오클랜드 교회

1945년 7월 임두화는 오클랜드 한인교회로 부임하였다. 그 해 가

200달러, 가난하고 고통 받는 자를 위하여 9.25달러, 구제금으로 15달러, 적십자회에 15달러를 기증하는 등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려고 노력했다. 임두화는 순회선교목사로도 사역하였는데 남가주의 일합브라와 북가주의 세크라멘토와 나파와 버링햄 등의 한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

이듬해 1월에는 미국 연합감리교 산하 웨스트 위스콘신 연회의 한인 그룹에서 27일간 44번 설교했고, 3월에는 2주일을 남가주의 한인사회를 찾아 10번의 설교를 했다. 뿐만 아니라 백인교회를 방문하여 '조선과 기독교회'라는 강연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한인 이민교회를 소개했다.

#### 상향교회

김태대 목사의 뒤를 이어 1946년 2월에 임두화는 상향 교회에 부임한다. 그는 1948년 8월 28일에 별세할 때까지 약 2년 반 동안 상향교회를 섬겼다. 1946년 4월 본 교회는 국민회 상향지방회와 연합으로 전쟁에서 돌아온 본 교회 참전용사 환영회가 있었다. 27명의 한인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 해 부활주일에는 5명의 어린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고, 5월 5일 주일에는 성찬식을 가졌다. 당시 주일에배에는 약 45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1947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서 온 89명과 가주 타 지역에서 온 49명의 한인 등 총 약 140명을 맞았다. 이들은 주일에배에 참석하였고, 사택에서 식사를 나누었는데, 임두화는 특별히 조국에서 온 이들을 섬기는 기회를 좋아했다. 1947년 겨울 황예바를 교사로 임명하여 8명의 학생으로 주일학교를 다시 조직하였고, 이듬해 5월에는 MYF를 조직하고 회장에 임두화의 아들 임병철이 수고했다.

#### 소천

임두화는 1948년에 순회선교목사로서 시애틀과 몬타나와 디트로이트 그리고 포틀랜드를 여행하며 장차 한인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했고, 목사관 건축을 추진하여 미국감리교회로부터 7,500달러의 지원 약속을 받아 설계도까지 완성하였다.

그런데 그는 대한민국 독립 후 2주년이 되던 1948년 8월 28일 향년 62세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damien.sohn@gmail.com

19세에 하와이 도착, 에모리대와 신학교 졸업하고 1921년 귀국

1930년 미남감리교회 총회 참석 후 미주한인 선교에 비전 가져

1933년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담임, 교회당 건축, 한글학교 설립

1945년 오클랜드한인교회, 46년 상향교회 부임...순회선교목사로 사역



오클랜드교회, 1942년



상향교회



임두화 목사 가족

임두화는 1930년 5월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4년마다 열리는 미국 남감리교회 총회 참석 후 중가주 달라노교회에서 '교회'라는 주제로 전도한 후 한국에서 동행한 협성신학교 교수 김인영 목사와 함께 교인들을 심방하였고, 데프트와 리들리 등 중가주 교회들 방문하

그 해 감리사 프라이 박사의 말대로 그는 인간성을 잘 이해하는 높은 수준의 크리스천 신사였고 훌륭한 유머감각을 가진 분으로 본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그는 새해 첫 주일마다 모든 가족이 총동원하여 함께 예배하도록 새해인사와 함께 초대장을 각 가

으로 적국 일본인 대우로부터 해제되고 연합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 기간 임두화는 '10인 하와이한인실행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한인사회의 문제제기나 요구점을 군정 본부에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1942년 11월 임두화는 심장마

을 그는 두 번 선교에 관한 설교를 했다. 3개월 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였던 아들 임병철이 보낸 편지가 노신태를 통해 신한민보에 소개되어 일본의 패전과 서울의 해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1945-1946년 재정부고에 따르면 본 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군'에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On Campus Courses

###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 On Online CoursesCourses (8 weeks)

###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리더십 코멘터리 (52)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뷰티풀 에이징 (Beautiful Aging)

아름다운 늙음의 길

오래전에 TV 광고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소개되어 큰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큰 반응과 함께 꿈과 희망을 안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나이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우리 주변에 78세의 할머니 대학 신입생이 있는가 하면, 80세가 넘는 나이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할아버지가 있다. 얼마 전에는 70세가 넘는 할아버지들이 ‘실버축구단’을 창단했는데 심지어 젊은이 못지않은 당당한 모습으로 주위를 놀라게 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그렇다.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그렇다. 84세의 나이에 젊은이들도 위험한 ‘서핑(surfing)’을 즐기는 미국의 래빗 케카이 할아버지가 있다. 또한 프랑스의 장 갈몽 할머니는 85세에 펜싱을 배우고, 100세에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고, 121세에 ‘Time’s Mistress’라는 노래를 발표하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72세의 나이에 낙하산을 탔고, 윈스턴 처칠은 77세에 영국 수상이 되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이를 먹고 늙는다는 것이 곧 능력의 감소나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월이 피부를 주름지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나 믿음, 능력까지 주름지게 할 수는 없다. 오늘도 아름다운 늙음(Beautiful Aging)의 길을 걷고 있는 리더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죽는 날까지 배우며 쉬지 말고 일하라

늙음과 친하려면 계속 성장해야 한다. 모든 동식물은 한없이 자라지 않는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멈추고 죽기 시작한다. 그러나 백향목은 그렇지 않다. 백향목은 줄기 차게 자라는 나무이다. 그러나 나무처럼 쭉쭉 자라는 것도 아니고, 버드나무처럼 순식간에 자라는 것도 아니다. 백향목은 36m까지 자라는데 그 높이가 무려 15층 높이의 건물에 해당한다. 그렇게 자라

기까지는 20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인생도 늙음과 친하려면 죽는 날까지 배우며 성장해야 한다. 변화무쌍한 인생과 세월의 풍파는 모질다. 아름다운 늙음(Beautiful Aging)의 길을 걷는 리더들이여, 백향목처럼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죽는 날까지 배우고 성장하며 자라기를 기도한다.

늙음과 친하려면 죽기까지 쉬지 말고 일감을 찾아 움직여야 한다.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명마도 늙어 쇠하게 되면 걸음이 느려

### 백세시대 인생 2막 준비...죽는 날까지 배우고 재능을 향상시켜야 준비와 적응, 위기를 기회로...좋아하고 잘하고 원하는 일 찾도록

지고 둔한 말보다 뒤처지게 된다. 영웅호걸도 나이 들어 늙으면 보통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백향목 속에는 언제든지 수액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뿌리에서 빨아 올린 액은 줄기로, 줄기를 통과한 액은 가지로, 가지로 올라온 수액은 잎으로 움직인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인생이 늙음과 친하려면 백향목처럼 끊임없이 활동해야 한다. 인생에서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죽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백향목처럼 계속해서 쉬지 말고 활동해야 한다. 백향목은 살아 있는 한 성장하고, 살아 있는 한 계속해서 수액이 살아 움직이는 나무이다.

아름다운 늙음(Beautiful Aging)의 길을 걷는 리더들이여, 쉬지 말고 일감을 찾아 매일 새롭고, 매일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기를 기도한다.

80세까지 재능을 향상시켜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늙으면 고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 늙을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 분명한 인생관을 갖고 가치 있는 일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한 절대로 노인이 아니다. 믿음과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은 은퇴이후에 더

많은 일을 해서 80세부터 진정한 재능을 발휘하여 향기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뷰티풀 에이징(Beautiful Aging)을 꿈꾸며 늙음과 친하려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고난을 극복하고 배우며 성장해야 한다.

늙더라도 자신이 좋아서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즐겁게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인생 60! 그것은 아직 청춘이고 새로운 인생 2막의 시작이다. 아름다운 늙음(Beautiful Aging)의 길을 걷는 리더들이여, 매일 아침 활력을 얻어 새로운 기운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며 뷰티풀 에이징(Beautiful Aging)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한다.

피할 수 없는 인생 2막, 과감히 도전하자

경제성장의 주역인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의 인생을 구상 중인 이들 세대들이 또 다시 취업 전선으로 몰려들면서 재취업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생 100세 시대가

첫째, 혼돈의 시간을 준비하라.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세상에 나오게 되면 인생 2막은 혼돈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익숙했던 규범이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롭고 낯선 것이 찾아오기 이전까지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 그 혼돈의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 2막의 적응이 결정된다.

둘째, 아웃사이더가 되는 준비를 하라. 인생 2막은 여행에 비유할 수 있다. 여행은 미지의 세계를 접하게 된다는 설렘이 있는 반면, 익숙했던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아웃사이더가 되는 체험이기도 하다. 잘하면 관습이나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유익도 있지만, 문화적응에 실패하거나 준비가 부족하다면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자칫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감, 어느 쪽에 방점이 찍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2막은 결정된다.

셋째, 인생의 위기를 준비하라. 안정되고 스텔만점의 인생 2막이란 말은 형용모순이다. 투자에서 고

수익과 리스크가 언제나 동반하듯이 인생 2막 역시 마찬가지이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 인생 2막도 그렇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 2막이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그 사소한 차이가 결국은 인생의 태도를 좌우하게 된다. 위기를 준비하며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

넷째, 나만의 골든 트라이 앵글을 찾아라. 내가 좋아하면서 누구보다 잘하는 일, 원하는 일을 찾아내야 한다. 유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합해졌을 때 비로소 나의 일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골든 트라이 앵글이다.

다섯째, 두려워 말라. 이 시대는 하나의 직업, 하나의 직장을 완주하고 끝나는 인생이 흔치 않다. 인생은 두려움이 가득한 끝없는 변신을 요구한다. 무미건조한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인생 2막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 건강한 몸으로 인생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 2막의 실버시즌(Silver Season)은 삶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귀중한 시기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리더들이 인생 2막을 통해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고 유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 영성칼럼

이희련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 응두새미로 끝난 솔로몬의 지상 최대 금수저 인생(솔로몬 묵상 1)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찌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 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열왕2:2-4).

솔로몬은 형 아도니아의 도전으로 위기가운데 왕으로 등극한다. 자신을 대적했던 원수들에게 적절한 때 조지도록 부탁한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적절히 그들을 제거함으로 자기 자리를 견고히 해간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실 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여 뛰어난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만복을 덩으로 부여하신다. 하여 정국이 국내외로 안정과 부를 이루어 7년간 성전건축과 13년간 자기 공을 건축하였다. 엄청난 성전을 건축하고 법궐을 제사장이 메고 지성소에 들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와 전에 가득하였다.

“다윗을 위해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기도 응답의 집이 되게 하소서” 성전헌당 기도에서 진실 된 판결, 용서와 회복의 기도를 간구하며 백성들을 축복하고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쓰며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권고한다.

선왕으로 출발을 어느 누구와도 비할 리 없이 하나님이 본인이 구한 백성을 다스릴 지혜뿐 아니라 물질, 명예, 권력, 등등 지상의 복이만 복은 부족한 것이 엄청스러 부어주셨다. 하나 탐욕이 만약의 근육이 아니런가? 솔로몬이 구한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고 돌이켜 우상을 섬기면 어려움을 주실 것을 경고하셨건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토를 키우는 방법으로 주위의 이방공주들과 정략결혼을 하고 각 이방 왕비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신전들을 허락한다.

솔로몬의 시선은 처음부터 땅에 고정되어 있었다. 땅에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릴 지혜를 구했다. 그 지혜의 목적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성공적인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행복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에 박차를 가하여주신 지혜로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궤도에 올려놓는다. 성전봉헌도 하고 일단 이 목적이 이루어지니 자신의 할 일을 숙제를 마친 것 같이, 그 다음에 스스로 누릴 자격이 있다고 당연히 세속의 왕들의 쾌락 추구의 길을 자신의 행복의 길로 내딛었다. 아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려 경고에 경고하시며 무척이나 애쓰셨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 세상이 자신의 손안에 오니 슬그머니 욕심이 타고 들어 이방 공주와 결혼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써가며 피를 흘리지 않고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는 합리화를 쥐고 더 많은 영토를 갖기 위해 믿음의 방법을 버린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된다는 식의 눈에 보이는 더 많은 것을 움켜지겠다는 탐욕 기록 세계관으로 중심이 병들다. 이방 왕비들이 솔로몬의 믿음을 흔들며 우상숭배에 폭 빠지니 하나님이 제일 금하신 우상숭배의 죄를 이스라엘에게 끌어 들인 장본인이 된다. 삶이 안정이 안되고 불안했을 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치심하다가 부와 영광이 극심해지고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어지니 백성들은 힘든 건물 증축에 밀어 넣고 자신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삶의 목적이 우상으로 바뀌고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부를 공급하는 수호신의 자리로 밀려난다. 말년에 반란이 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 저기 반란으로 뒤흔들리는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다.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 세상에서 휘두른 금수저 인생이 자손들에게 가시가 가득한 장미라도 여전히 그런 인생이 부러운가? heenlee55@hanmail.ne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해 온  
미드웨스트대학교  
www.midwest.edu

### Master and Doctoral Degree Program

## Brain/Gifted Education 두뇌개발, 영재교육 석사, 박사학위 과정 MBA – Public Policy/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석사학위 과정

### Master of Arts Education in Brain / Gifted Education

입학자격: 유아교육, 교육전공 학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 Doctor of Leadership in Brain / Gifted Education Leadership

입학자격: 대학에서 유아교육, 교육 전공자, 유아교육,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자 및 동등 학력자, 교육경력 3년 이상인자.

### MBA – Public Policy Administration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 학점, 학위취득 방법 ●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이 가능함.
- 4) 타 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함.

###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B.A 학사- 경영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학  
B.S 항공학과- 조종사과정, 승무원, 운항관리사  
MA 음악, 영어교육, 상담, 교육(두뇌개발, 영재 교육)  
MBA 리더십학, 공공정책과 행정, 글로벌비즈니스, 경영학, 투자  
M.Div 신학  
D.Min 상담, 교육, 목회신학, 선교,  
DM 음악 박사  
DL 리더십학 박사 - 경영리더십, 조직리더십, 두뇌개발/영재교육리더십

### B.S in Aviation Management/ Flights 항공학 학사 및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전공: 항공운항과, 헬기운항과, 운항관리사, 승무원과정

신청자격 : 고졸이상자 및 전문대 혹은 대학 중퇴자, 대학졸업자, 전공에 관계없이 편입가능, 여학생 환영

### ● 항공학과 특징 ●

- 1) 미국의 타 항공학과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 2) 한국에서 조종 실기는 2-3년 소요되는데 본교에서는 학위과정 중 조종사 면장까지 취득가능.
- 3) 비행 훈련을 위한 넓은 활주로와 실기용 비행기 20 여대 준비 되어있다.

### Pilot Certificate Programs (국제조종사 FAA 면장과정)

일반 대학졸업자를 위한 조종사 면장과정- 1년 과정(자가용면장, 계기비행면장, 상업용 면장)

### ● 본교소개 ●

본교는 1986년 세계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 중부 도시 St. Louis 에 설립되어 개교 32주년을 맞은 미국 대학교이며 워싱턴 DC 에 본교, 서울, 방콕, 페루에 Site 를 두고 있고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 여개국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교이다.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교 (USDE) OPE ID: 035283000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학위

입학상담 및 문의처 : 636-327-4645, 070-8690-2662, 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목회서신

## 그리스도인의 윤리 실천의 비결



여승훈 목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방향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 역사가 베풀어지는 것이다. 구원 역사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베풀어진다는것은 모든 구원 역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적 정체성과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일종의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것이 원인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과에 해당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비교해 볼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0%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2장 8-9절을 보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므로써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일종의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게 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에 대하여 설명해 가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말씀이 가진 구조 자체가 원인 결과의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원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덕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일을 가리킨다. 즉 진정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일상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삶은 언제나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법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법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다. 즉 나무의 상태는 열매를 맺게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이며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나무에 속한 사람과 나쁜 나무에 속한 사람의 구분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Relationship)가 어떠한가에 따라 판단 하신다.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적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승천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을 사모 하며 걸어갈수 있도록 다스리고 계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right relationship)에 놓여 있다고 판단 하신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적 믿음을 가질때 윤리적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와 윤리적 삶 사이의 불균형에 대한 깊고 깊은 고민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것을 본다. 그래서 윤리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지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한가지 사실을 꼭 되새겨 보자. 우리가 과거의 죄의 행위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어디로 부터 오는 것인가? 2000년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온다. 그것은 곧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의 영향은 어느 범위까지 미치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복음의 감격에 의한 능력이 없이는 결코 윤리적 삶을 살지 못한다.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의 과정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하나님 100% 인간 0%)이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후에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것은 하나님과 구원 받은 백성간의 협력 사역이다. 여기서 협력 사역이라함은 하나님 50% 인간 50%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와 인간 노력 100%를 말한다. 현대 기독교가 고민하고 있는 윤리적 삶의 실천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 부족을 우선적으로 꼽는다면 계속적인 실패를 거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본적인 원인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

부터 지적 받았던것처럼 첫사랑의 감격을 놓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사랑이 어떤 것인가?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것을 가리킨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첫 사랑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십자가이다. 십자가의 감격이 곧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윤리적 삶을 실천하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 부여 인이다. 그러므로 빈약하리만치 부족한 윤리적 실천의 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결심이나 마음의 중심이나 노력을 점검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나를 사랑 하사 나를 위하여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온도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만큼 윤리적 삶도 실천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외칠 뿐이다.

# 이민 115주년기념 아메리카연합재단 전국대회

## 미주한인 예배의 날 결의안 공포

미주한인이민 115주년 기념 아메리카연합재단 전국대회가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LA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포럼, 한인의 날 주일 결의안 선포, 장학금 수여식, 선교보고회, LA아메리카 가나안농공학교 설립준비예배 등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JJ그랜드호텔에서의 첫날 일정은 미주한인의 날 기념주일 결의문 작성 서명식, 개회예배 및 환영만찬을 했다.

이우호 목사(아메리카연합재단 총회장)는 “지난 1903년 1월 13일 우리민족이 하와이에 처음 이민 온 날을 기념해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지난 2005년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제정 공표했다”며 “이러한 역사적인 날을 미주에 사는 모든 동포들이 기념하기 위해 앞으로 1월 13일주간 각 교회에서 미주한인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오늘 결의문 작성과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공동회장 정우용 목사(대회장)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는 김현국 목사(펜실베이니아 공동회장)가 개회 기도했으며 김현미 사모가 특송, 박현성 목사가 설교했다.

이어 김도석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환영만찬으로 이어졌다.

이어열린 제3차 LA전국대회 개막식은 애국가 및 성조기를 소프라노 김현미 사모가 불렀으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김도석 명예총회



제3회 아메리카연합재단 전국지도자대회에서 이우호 총회장이 결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장 개회인사, 오레곤 주 5선 의원 임용근 명예총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이어 조응규 명예총회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미주한인대상 수여식을 가졌다.

같은 장소에서 둘째 날 아침 조찬기도회를 가진 후 대한민국교회, 안창호 선생 생가, 6.25한국전쟁당시 흥남철수작전에 투입된 SS메르디스 빅토리아호 방문을 했다. 이어 LA재단 사무실에서 특수사역보고를 했다. 특수사역보고는 김정용 교수가 의료사역에 대해, 홍연숙 교수가 한국어 세계화에 대해 그리고 미첼첵 음악전도사가 교회 내 청소년 문화사역에 대해 사역보고를 했다.

그리고 오후 7시 월튼장로교회에

서 ‘북한의 변화를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포럼에 임용근 의원, 조응규 의원, 이상명 총장이 연사로 나와 강연했으며 ‘성경과 백만장자’라는 주제 특별강연은 이우호 총회장이 강사로 나서 강연을 이끌었다.

이어 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마지막 날 오전 11시30분에 열린 LA아메리카 가나안농공학교 개설과 십자가 행진이 개최돼 제 1호에 임용근 의원이 십자가를 메고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이민 1세대로 5선 의원을 역임한 임 의원의 뒤를 따라 한인후손들 가운데 미국 정계뿐만 아니라 의회와 주, 시정부의 관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박준호 기자)



GIM 글로벌국제선교대회에서 각 나라 대표들이 함께 릴레이기도를 하고 있다.

##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지어다”

### 제 13회 GIM 글로벌국제선교대회 성료

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Rally(글로벌국제선교·교회연합) 주최 제13회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운명 목사, 월넛 크릭 지아이엘 교회 담임)가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시96: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지어다)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열렸다.

28일엔 샌프란시스코 플레젠트 힐의 First Christian Church(담임 Doug McCoy 목사), 29일엔 오클랜드의 Emmanuel Palabra Viva Church(담임 Orlando Cerna 목사)에서 30여 민족 대표와 다민족 성도들이 모여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소원하는 헌신의 결단과 결속의 시간을 가졌다.

미국 주류교회를 비롯 한국, 우간다, 아이티, 동유럽, 루마니아, 미얀마, 중국, 이란, 라티노, 아랍, 에티오피아,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메리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스라엘(메시아니즘), 몽골, 통가 등 30여 여러 민족대표와 많은 다민족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간구하는 합심릴레이 기도에도 이어 12개국의 선교보고, 메시지, 패널, 찬양 페스티벌이 진행됐다.

대회 주강사인 Rick Durst 박사(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가 “사회의 역경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과 비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국제패널은 폴러신학교 리더십 교수인 Doug Stevens 목사 사회로 “Seek, Justice, encourage the oppressed”라는 주제로 7명의 패널위원들의 발표가 있었다.

제 13회 GIM패널은 이사야 1장 17절에 비취 교회의 역할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우며 정의를 추구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패널에서는 한국의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에 관한 토론도 있었다.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인들로서 한국의 교회와 함께 미국의 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한 대우를 위해 기도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대회 기간에 북가주지역의 아름다운여인들의모임(회장 강영혜 집사) 산하 Enlightened Korean-american Women's Club 크로마하프 팀(단장 양경혜 집사)의 아름다운 연주가 있었으며, 미국교회와 라티노 등의 특별찬양도 있었다.

특히 연합 합창단은 :갓 블레스 아메리카:를 부르면서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함께 소원하면서 내년도 10월 산마태오 지역의 Westin Hills Church(담임 Karl Ortis)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기사제공: GIM)

## 리포지대학 김상래 총장 취임식

### 77년 역사 첫 한인... “오직 하나님 뜻 나타나게”

지난 4월 5일, 펜실베이니아 소재 벨리포지대학교(Valley Forge) 10대 총장으로 선출된 김상래 목사(David S. Kim, 사진)의 총장취임식이 지난달 12일 오후 3시 본교 플라워강당에서 열렸다.

김상래 총장은 “총장으로서 자칫 없는 자신을 세위주신 교단과 이사 그리고 학교에 감사한다. 앞으로 주어진 사역을 진행하는데 개인의 발전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대학을 통해 다음 세대를 복음의 준비된 일꾼들로 양육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관계자들과 협력하며 사심 없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총장수락 인사를 했다.

이날 취임식은 부총장이며 학사담당 제롬 더글라스 박사의 환영사로 시작돼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대학성가대의 찬양 후 등단한 이사장 칼 폴레티 박사는 “대학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뜨거운 심정을 가진 총장을 세우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학교와 학생들, 모든 교직원들을 축하한다”고 환영사를 했다.



이어 진행된 취임설교로 등단한 다니엘 맥너튼 박사(사우스이스턴 대학 구약학교수)는 벨리포지 대학 시절 김 총장과 함께 지낸 일을 회고하며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항상 진실하며 특히 배울 때부터 교회개혁분야와 사역을 돕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언급하며 “하나님은 그런 그의 열정을 아시고 대학을 새롭게 인도해 나갈 가장 적합하고 뛰어난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말했다.

연이어 대학의 각 관계자들은 분야별(이사대표, 교수대표, 학생대표, 동문대표)로 등단 신입총장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진실 된 협

력을 다짐하는 헌신 약속(Dedicatory Reading)의 순서를 가졌다.

취임식 직후 학교는 참가한 500여 내외빈을 위해 만찬을 준비했다.

김상래 목사는 전 케네디재단인 선교교회 담임이었던 고 김남기 목사의 장남이다. 김상래 목사는 1970년 초반 부모가 케냐선교사로 파송, 사역 중 선교지에서 태어나 성장기 동안 부모와 함께 선교사역을 삶으로 감당해오던 선교마인드 중심을 가진 선교전문가다.

김 목사는 청소년기까지 선교지에서 살다가 대학진학을 위해 동부 지역으로와 학업을 하는 동안 프라미스코회 종교동부와 영아사역(PIF)을 개척, 크게 부흥시키고 보장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소천하신 부친의 뒤를 이어 2010년 다시 선교사로 헌신, 예과도르 선교사로 파송돼 사역하던 중 2013년 대학초청으로 귀국해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상래 목사 부인과 네 자녀, 양가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장 김남수 목사(프라미스코회 담임)와 한국총회와 뉴욕신학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축하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월드미션대학교가 마련한 중국학교 후원의 밤.에서 송정명총장이 인사말과 함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세계복음화의 한 모퉁이 감당”

### 월드미션대 중국학생 장학기금 후원의 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목사)는 4일 저녁 6시 중국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송기선 동문의 사회로 시작된 후원의 밤에서 송정명 총장은 “본교

에서는 중국목회자 교육을 후원하기 위해 지난여월부터 중국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중국교회는 차세대 세계복음화사명을 감당해야 할 큰 과제가 있다. 그러나 뜨거운 사명감과 열성만 갖고 체계적인 신학훈련이 없이 현장에 뛰어들어 사역하게 됨으로 신학의 혼돈과 목회훈련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한 뒤 “오늘의 후원이 세계복음화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기도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진 뒤 중국학생 현황과 비전 나눔 시간을 통해 중국 한족 목회자의 현황과 교육 지원의 필요성, 후원자로서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성병헌 권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지용일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뒤 윤성환 이사장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http://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 대상 박동진 미주장신...9개신학교 참가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설교 페스티벌

미주성시화운동본부(국제총재 박희민 목사,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가 주관한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설교 페스티벌이 4일 오전 9시 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열렸다.

설교 페스티벌은 1부 예배, 2부 페스티벌, 3부 평가 및 발표로 진행돼 대상 박동진, 설교상 권영란, 주해상 박면호, 커뮤니케이션상 김경식 신학생이 수상자로 뽑혔으며 학교별로 2천 달러, 1천5백 달러, 1천5백 달러, 1천 달러가 각각 전달됐고 참석자들에게는 참가상과 상금 200달러가 수여됐다.

행사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박종술 목사(KCCC 임시대표)의 찬양으로 시작돼 백은학 장로(홀리클럽회장) 기도,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국제총재) 설교, 이호우 목사(OC교회 회장) 축사,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축도로 마쳤다.

이날 박희민 목사는 히브리서 4장 12-13절을 통해 설교자의 사명과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제시하며 본 행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설교 페스티벌은 최승목 목사의 사회로 미션대학교(박정화), 베네디크대학교(이대혁), 클레어몬트신학교(김태호), 에반젤리아복음대학교(조재연), 풀러신학교(임진



설교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차지한 박동진신학생(상)\_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하)

업), 그레이스미션대학교(권영란), 국제개혁신학교(김경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박동진), 월드미션대학교(박면호) 등 9명이 단에 올라 주어진 15분 동안 말씀을 전했다.

이날 심사위원은 참여대학교 교

수들로 구성돼 전달력과 열정, 정확한 본문 주해, 설교구성, 종교개혁적 전통과 유산의 이민주현장적 적용 등을 살펴 수상자를 선발했다.

<이성자 기자>

이날 우수상을 차지한 박동진 신학생(미주장신)은 ‘하나님의 개혁’(왕하22:2-7)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개혁은 창세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개혁되고 완성될 것”이라며 “예배의 개혁이 이뤄지려면 먼저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인생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씬 없이 수리하라 명령하고 계신다. 개혁에는 고통이 동반된다. 진정한 교회개혁은 바로 나부터 변화되고 개혁돼야 한다”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진정한 개혁을 위해 나 자신부터 개혁되자고 강권했다.

그 외 설교상을 수상한 그레이스미션대학교 권영란 신학생은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믿음의 삶”(롬 1:15-17), 주해상의 월드미션대학교 박면호 신학생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롬 1:15-17)을, 커뮤니케이션상 국제개혁신학교 김경식 신학생은 “시대의 패션리더”(엡4:17-27)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대회를 위해 김유리 학우(WMU)와 나경화 찬양선교사의 특별 찬양이 있었으며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4시간에 걸친 설교 페스티벌을 지켜본 참석자들은 “신학도들의 설교를 들으며 교계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자 기자>



사랑의 나눔 콘서트에서 찬양하고 있는 남가주한인합창단

## 사랑선교회 사랑의 나눔 콘서트 일일차집...장애우와 불우이웃돕기

사랑의선교회(대표 느헤미야공선교사)가 주최한 사랑의 나눔 일일차집 콘서트가 5일 저녁 6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교회에서 열렸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해 10여년 전에 태동된 사랑의선교회는 정기적인 예배모임과 문화공연 행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해 장애우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이날 개최된 일일차집 콘서트도

기금모금의 일환으로 열린 것으로 남가주한인합창단, 조이풀 선교합창단을 비롯해 워싱턴과 10개 합창단의 공연이 훈훈한 사랑의 화음으로 이어졌다.

사랑선교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광명선교회(담임 김영화 목사)에서 모여 예배드린다. 자세한 것은 (213)245-48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가마 의료팀이 티화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

## 티화나 판자촌에서 1일 의료 선교 미주 GMMA...총 33명 의료진 헌신

미주 GMMA(Global Medical Missions Alliance, 대표 안상훈 집사) 의료팀이 지난 10월 28일 멕시코 티화나 청계전(Alamar)교회에서 의료선교를 진행했다.

GMMA에서 여러 전문의와 의대생들을 포함 총 33명의 의료진이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찾아간 것이다.

매우 가난하고 불쌍한 동네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주는 모습은 많은 감동을 일으켰다. 틈틈이 환자들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주는 모습 또한 감동이었다.

이번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 치료, 물리 치료, 기본 건강 검진도 받고 약도 가져갔으며 최근 이 판자촌 동네 화재발생으로 화상을 입은 환자도 찾아와 치료를 받았다.

의료선교와 전도를 병행해 다른

한 교회의 협조로 광대와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풍선놀이 등으로 동네 거의 모든 아이들이 몰려와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의료선교팀을 안내한 최재민 선교사는 “가끔 안경선교팀이 올 때마다 치과나 소아과 등 다른 분야의 의료팀도 오게 되기를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이렇게 멋진 의료 사역이 다시 이뤄졌다. 이렇게 진료를 받기 위해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교회로 연결돼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 의료팀은 11월 11일 티화나의 한 산동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사역을 할 예정이다.

▲문의: 최재민 선교사(1-213-675-7575 미국&멕시코 공용)

(기사제공: 미주 GMMA의료팀)

## 서부교계 게시판

west

### 사랑한인교회 교회설립 33주년 부흥성회

사랑한인교회(담임 하재식 목사)는 교회설립 33주년을 맞아 ‘참된 부흥을 주옵소서’란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11월 9일(목)일부터 12일(주)까지 진행되며 강사는 장동찬 목사(베다니교회 원로) 목, 금, 토요일 저녁집회는 7시30분, 주일 1부 9시, 2부 10시50분.

▲문의: (213)380-0085

### 은혜한인교회 추수감사절 특새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추수감사절 특별새벽부흥회가 오는 13일(월)부터 18일(금)까지(월-금 오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6시) 열린다. 강사는 담임 한기홍 목사.

▲문의: (714)446-6200

### 밸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학자금세미나

밸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디렉터 구자형)가 오는 12일 오후 5시 노스리지에 위치한 주안교회(19514 Rinaldi St.)에서 학자금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AFSA)와 CSS 프로파일 작성법, 529 플랜 및 학자금 생명보험 활용하기, 그랜트와 장학금, 워 스테디, 연방 보조금 등에 대해 알아본다.

▲문의: (213)500-9739

### 남가주 외대코랄 정기연주회

남가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문화 산하 합창단인 ‘외대코랄’(단장 김재권, 지휘 오위영)이 제 4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12일(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4350 Wilshire Blvd)에서 갖는다. 이번 연주회는 남가주 한국외대동문회(회장 이영기)와 LA G-CEO원우회(회장 이교식)가 주최하며 현대음악과 국악의 만남, 그리고 쓰리 테너의 무대가 준비된다.

▲문의: (213)725-4488, (213)820-3850

### 제2회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2회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지휘 최경은 교수) 정기연주회가 11일(토) 오후 1시30분 Hollenbeck Palms Retirement Center Chapel(573 S. Boyle Ave, LA)에서 개최된다.

▲ 문의: (323)594-2060

### 구세군 터스틴랜치한인교회 성금모금 행사시작

구세군 터스틴랜치 한인교회(담임목사 이용우)는 지난 3일 가든 그로브 아리랑 마켓 앞에서 시종식을 갖고 올해 구세군 성금모금 행사를 시작했다. 이 행사는 12월24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사이 OC 내 아리랑 마켓(가든그로브, 풀러튼), 시온 마켓(어바인, 부에나 파크), 한남제인(풀러튼)에서 각각 진행된다. 한편 구세군 터스틴랜치 한인교회는 오는 11일(토) 오후 5시 자선 모금을 위한 음악회도 개최한다.

▲ 문의: (714)949-6395, (213) 447-2773

## CHTV, 새 채널 KDOC56.9로 이전

크리스천헤럴드/CHTV 방송이 11월 1일부터 남가주 최고 방송사 중 하나인 KDOC56으로 채널을 이전하게 됐다.

KDOC56 방송사는 현재 9개의 디지털 채널로 방송하고 있으며 LA 지역 방송채널 중 가장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로 방송하게 됐다.

CHTV방송은 미연방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FCC)와 채널18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디지털TV 채널 변동이 불가피해 지난 7월 1일자로 계약당사 채널인 18.10에서 18.7로 이전한 바 있다.

(기사제공: CHTV방송)



한인가정상담소에서 OC교계 사모들을 초청 세미나를 가진 후 기념촬영.

##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1박2일 수련회, 목회자 부인 10여명 참석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지난 10월 26일과 27일, 1박2일 수련회 형태로 실시했다.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독교 목회자의 부인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가정폭력의 정의와 패턴, 아동학대와데이트폭력 등에 대해 배우고, 한인사회 가정폭력 실태에 공감하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토론했다.

또 앞으로 한인가정상담소와 협력하며 건강한 한인사회, 한인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카니정조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는 한인가정상담소와 같은 에이전시를 찾아오기 전에 종교계 관계자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에 한인가정상담소는 6년 전부터 한인 목회자들과 교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궁극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한인교계와 협력해 한인사회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음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 찬양사역자 허지에 자매 음원출시 ‘주님 말씀만이’ ...청년들 중심 잡을 도구로

찬양사역자 허지에 자매의 첫 번째 찬양곡 ‘주님 말씀만이’ 음원이 최근 출시됐다.

지난 2010년 열렸던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미국대회에 참가해 극찬을 받은 허지에 자매는 지난 2014년 8월 출시된 ‘Where is my Man’ 이

후 3년 만에 그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게 됐다.

허지에 자매는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의 진리보다 더 우리 삶에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급속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년들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을 가사에 담았다”고 말했다.

‘주님말씀만이’는 귀에 익숙한 보사노바 리듬을 바탕으로 한 연주



새롭게 선보인 허지에시디 표지

자들의 편안한 플레이가 허지에 자매의 목소리와 잘 어우러졌으며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의 신곡 ‘주님 말씀만이(No Sweeter Words)’는 현재 유튜브(www.youtube.com/watch?v=N-mqgj29MD4&feature=youtu.be)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아이튠즈(iTunes)를 비롯 각 음원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 목회사회학연구소, 수도권 25개 교회 심층 인터뷰

#서울 구로구 A교회는 최근 옛 도심 공동화와 고령화를 정면으로 맞고 있다.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도시개발 목적으로 추진한 뉴타운 사업이 중단되면서 주민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3000명이 다니던 교회 인근의 초등학교생 수는 이제 700명 남짓 남았다. 젊은 교인들은 자녀교육을 이유로 교외로 떠나고 남은 교인은 60대 이상 노년층이 대다수다.

#경기도 안양의 구도심 지역에 있는 B교회, 한때 교인이 700명 정도에 이른 중형교회였다. 1970~80년대 당시 교회 부흥기를 맞아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 하지만 최근 교인은 2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1년에 나가는 이자와 관리비만 2억원이다. 예배당을 팔 수도 없고 팔려고 내놔도 주택 지역에 있어 사려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                                                                                                                                                                       |  |
|-----------------------------------------------------------------------------------------------------------------------------------------------------------------------|--|
| ‘교회 허리’ 중형교회 침체 왜                                                                                                                                                     |  |
| 중형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도심 공동화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 같은 여파는 ‘교회의 미래’ 20~30대 교인 급감과도 맞물리면서 교회 재정난과 신앙의 보수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
|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 조성돈 교수)는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한국교회 마지막전 중형교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소는 거룩한빛광성교회(정성진 목사) 후원으로 지난 2~9월 서울·경기도에 위치한 출석교인 300~1000명 규모의 중형교회 25곳을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  |
| 중형교회들은 1960년대부터 도심에 자리 잡은 뒤 70~80년대 도시로 인구가 급격히 몰려 부흥기를 맞았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젊은 세대가 급감하면서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                                                                   |  |
| 통계청에 따르면 20~30대 기독교인은 1995년 333만5988명까지                                                                                                                               |  |

린 일가전적, 사돈까지 합해 100명이 넘는다고 봐야 한다”며 “일종의 ‘씨족사회 권력’이 형성된다”고 표현했다.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점차 교회가 보수화된다는 얘기다. 젊은 세대가 들어올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실상가상 재정 파탄은 예고된 시한폭탄이다. 1990년대까지 중흥기를 맞아 예배당을 확장하거나 교외에 기도원을 지었지만, 교인이 줄면서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더해 은퇴 노년층이 늘고 젊

비일비재하다. 신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기성세대의 취향만 고려해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                                                     |
|-----------------------------------------------------|
| 청장년층에 맞는 프로그램 절실                                    |
| 전문가들은 합리적 교회운영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
|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실천신대) 교수는 “합리적 교회운영과 함께 청장년층에 맞는 교회 프로 |

## 구도심 공동화·고령화·재정난까지… ‘교계의 허리’ 중형교회가 무너진다



늘었다가 2005년 276만1863명, 2015년 241만3709명 등으로 줄어 들고 있다. 반면 40~70대는 1995년 239만940명에서 2005년 328만304명, 2015년 482만2740명 등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중형교회에 새신자가 유입되지 않고 기존 교인들만 남다 보니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한 목회자는 “오래된 중형교회는 장로 1명에 팔

은 세대가 감소하면서 중형교회의 재정난은 심화되고 있다. 중형교회 1세대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세대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도 심각하다. 은퇴한 목사의 원로목사 대우 문제와 관련한 지침이 없어 분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은퇴비용을 과하게 요구해 평생 존경받던 목회자의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그램을 개발해야 젊은 세대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며 “또 중형교회가 예배당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거나 효도관광을 확장하는 등 지역 주민센터·기관과 협력해 지역 교회로 자리 잡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대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부목사와 일반 교인 리더십을 성장시켜 교회 리더십 구조의 고착화 방지를 주문했다.

정재영 실천신대 교수는 “중형교회가 지향할 지점은 대형교회가 아니다”면서 “피라미드식 상명하달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자리 잡도록 다양한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션라이프〉

## “한국교회는 지금, 타락한 중세교회 닮아가...”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개혁주의생명신학 연합학술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유창국 목사)과 백석대(총장 장종현 목사)는 31일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과 개혁주의생명신학 연합학술대회’를 열고 한국교회 개혁과제와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현대적 의미를 성찰했다. 장종현 총장은 개회예배에서 “종교개혁은 중세 가톨릭교회가 예수복음을 왜곡하고 교황의 권위와 교회 전통을 성경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할 때부터 시작됐다”면서 “종교개혁은 성경께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 교회를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 운동”이라

고 설명했다. 장 총장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성경이 아닌 신학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영적 생명력을 점점 잃고 있다”면서 “영적 지도자의 욕심 때문에 연합기관 분열은 물론 500년 전 타락한 중세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개혁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심자가와 부활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제2의 종교개혁을 강력하게 일으키자”고 힘주어 말했다.

연합학술대회에서 최운배 장신대 교수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사변화(思辨化)된 신학을 반성하고 예수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운동”이라며 “말씀과 성령, 기도 속에서 전개되는 이 운동이 한국교회 문제가 도덕적 가치관이나 실천의 문제보다 예수생명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신학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짚었다는 데 매우 탁월하다”고 분석했다. 주도홍 백석대 교수도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부귀와 권세, 명예를 추구해 ‘영광의 신학’에 함몰돼 있던 교회를 고발했다”면서 “한국교회도 영광의 신학이 아닌 십자가의 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세교회는 종교개혁까지 1500년을 버텼지만 한국교회는

100여년 만에 제2의 종교개혁을 외쳐야 하는 엄중한 현실 앞에 있다”면서 “한국교회는 다원화된 세계 속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진리를 붙들고 시대 문제를 품고 고뇌하며 기도하는, 늘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정대신과 백석대는 ‘개혁주의생명신학 선언문’을 발표하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5대 솔라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2000여명의 목회자와 백석대 교수, 신학생들은 임석순 서울한국중앙교회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사경회에 참석해 제2의 종교개혁을 간구했다.

## 루터의 종교개혁, 환원, 연합운동으로 계속돼야

### 종교개혁500주년 학술포럼, 예수사랑교회서 개최

종교개혁500주년학술포럼이 종교개혁기념주일을 맞아 10월 29일 예수사랑교회(담임 이강평 목사)에서 개최됐다. 서울기독교대학교 총장 이강평 목사의 개회사에 이어서 서울기독교대학교 전석재 교수 사회로 안준배 박사가 종교개혁500주년과 한국교회 개혁실천 첫발제자로 나섰다. 한국기독교성령역사연구원장 안준배 박

사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조 논제를 한국교회 개혁실천위원회가 오늘의 시점에서 8개 개혁안으로 정립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개혁실천 8개항은 첫째,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둘째,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영성과 윤리성을 회복하고 교회경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 셋째,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더욱 연합하겠습니다. 넷째, 한국교회는 교회선거를 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루겠습니다. 다섯째, 한국교회는 교회 내의 문제를 세속 범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교회내의 중재기관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여섯째, 한국교회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일곱째, 한국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겠습니다. 여덟째, 한국교회는 세계의 화해, 평화와 하나님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날 서울기독교대학교 백종구 교수는 “종교개혁과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조동호 소장은 ‘그리스도교 예배전통회복운동의 현재적 의미’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날 포럼 발제자는 본질로 돌아가는 환원운동과 연합운동은 루터의 개혁정신을 이어가는 향후 한국교회의 중요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기사제공: 종교개혁500주년 학술포럼〉

## “기독교인 회개로 국난 극복하자”

### “기독교인 회개로 국난 극복하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새문안교회 앞 거리에서 개최한 ‘회개와 구국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쟁위기설까지 치닫게 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자고 다짐했다.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쏘인 문제가 풀리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엄 대표회장은 “지금의 위기상황을 적당히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면서 “통회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도록 간절히 기도하자”고 도전

했다. 이날 기도회에 군복을 착용한 인사들이나 태극기부대가 끼어들어 정치구호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설교자들도 순수하게 국난극복의 방안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5000여명의 참석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국난극복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간구했는데, 국가적 위기상황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통회자복했다. 참석자들은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 핵실험 저지, 국가안보, 한국교회 일치,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연단에 나온 인사들은 기도시간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날 국민대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성도와 절대 다수의 국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민 방한을 뜨겁게 환영한다”는 영문 입장문이 발표됐다.

##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 모른 척 할일 아냐”

### ‘새 500년의 시작’ 심포지엄

31일 국민일보가 CBS, 한국교회와 손잡고 마련한 심포지엄 ‘새로운 500년의 시작’에서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소비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성찰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시대의 개혁 과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심포지엄에서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정미현 교수,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 양권석 성공회대 신학대학원장이 주 발제자로 나섰다. 김학중 품의교회 목사의 사회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호남신대 신재식 교수, 한신대 나현기 선임연구원,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와 대한성공회 유시경 교무원장이 논찬을 겸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 목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란 주제를 많이 소비해왔다”며 “소비하면 익숙해지고, 문제의식이 둔해지면서 어쩌면 성서적 변화의 열망이 컸던 이들은 지금쯤 절망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목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기간에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 목사의 후임으로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문제를 거론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소비만 한 채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목사의 발언으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두고 축석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양권석 원장은 “500년 전 가톨릭은 권력화된 집단으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그 사회의 헤게모니, 억압적 질서와 동맹관계를 맺는 종교 단체는 개혁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성교회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일단 이런 시각에서 세습 문제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명수 교수는 “먼저 역사적으로 후계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혈통계승, 최고결정자의 지명, 대의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며 “이런 시대에 굳이 그렇게 하려는 것은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교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리더십 교체 기간에 깨지거나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선악을 구분해 비판하기보다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리더십 교체에 대해 연구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현 교수는 “타 교단 일을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 “교단 내 총회의 합의가 있었는데도 개교회에서 안 지켜진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재식 교수는 이런 세습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한국교회는 지난 30년간 급성장하면서 교회뿐 아니라 부속 사회복지기관, 언론기관 등 다양한 자산을 축적했다”며 “바로 이런 물질 자산으로 이득을 얻는 은퇴 목사와 리더십이 아파한 결과로 세습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한국교회”이라며 “명성교회와 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소속 목회자로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찬반 여부를 떠나 신학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유 신부는 “교단이 다르다고 모른 척 할 일이 아니라 저쪽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야 한다”며 “500년 전 종교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감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 문제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 명성, 김하나 목사 부임 공식화

### 김하나 목사, 새노래명성교회 사임서 제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이 서울 동남노회를 통과하면서 서울 명성교회 측이 김 목사 부임을 공식화하고 그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남노회 결정에 반발한 일부 노회원들로 구성된 ‘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는 29일 주일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아들 김 목사의 청빙청원안이 노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보에도 청빙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글이 게재됐다. 명성교회에는 또 정기노회에 앞서 총대들에게 김하나 목사가 후임 목회자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는 것과 세습방지법이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4건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빙 대상자인 김하나 목사는 지난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청빙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새노래명성교회의 사임서를 동남노회에 제출했다. 명성교회 부임을 위한 첫 번째 조치다. 이어 동남노회 정기부는 27일 이를 심사했지만 사임서에 김 목사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을 문제 삼아 처리를 보류했다. 교단법에 따르면 사임서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김 목사는 보완한 사임서를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부임은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명성교회 A장로는 “명성교회 성도들이 심사숙고 끝에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결정한 만큼 존중을 받았으면 한다.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미니 인터뷰

### 에스더임 전도사 (지저스키즈선교회 대표)

#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합니다”

## 무료 교사세미나 열어 교재와 설교집, 어린이 찬양DVD 배부

지저스키즈 (JesusKidz)선교회(대표 에스더임 전도사) 교사 세미나가 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홀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1년에 2차례씩 교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지저스키즈는 올해도 성탄 절기를 맞아 어린이들 특별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갈보리채플에서 사용하는 주일학교 교재와 설교집, 아이들을 위한 찬양 DVD 등도 무료로 배부했다. 뿐만 아니라 지저스키즈는 주일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을 타주를 비롯해 꿈이나 일본 등 각 선교지에도 보내고 있다.

본지에서는 강의를 마친 에스더 전도사와 짧은 인터뷰를 통해 그의 사역을 들어보았다.



벨리 소재 만남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로 섬기며 매년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JesusKidz.

7년째 이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에스더 전도사는 “하나님의 광관적인 인도하심이었다”고 사역 동기를 들려줬다.

임 전도사는 한동안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와 동양선교회에서 주일학교 디렉터로 섬기며 개인 학원도 운영하며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 어린이가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어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한 학부모가 찾아와 “제 직업이 간호원인데 교회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영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시키는 데 찬양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 너무 부담이 되고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하소연을 했다.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지만 삶이 너무 바빠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모든 사역을 중단해야 했다. 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일이 되도 전정만 바라봐야 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지나온 사역을 돌아보게 됐다.

스스로 자신은 사역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실히 알게 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하는 고백을 하게 됐다.

그때 에스더 선교사는 작은 교회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작은 교회를 다니며 발견한 어려움은 두 가지가 있어 결국 세미나를 생각하게 됐다.

도사님의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매번 올 때마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교회도 교육전도사가 있지만 토요일에 시간을 낼 수 없어 제가 대신 배워서 교재와 함께 전달합니다”라고 말하며 지저스 키즈 사역에 감사를 표했다.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교재비와 간식비 등이 만만치 않아 보여 궁금해하자, “한국에 동문들과 이곳에서 협력하는 분들의 도움으로 하고 있고 홀러튼장로교회에서는 무료로 교회를 오픈해 주시죠. 또 매번 간식을 전달해서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점점모이는 숫자가 적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하며 동역자들과 홀러튼장로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또한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좀 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즐겁게 복음을 전달하고 시대에 걸맞는 교수법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교회로 달려 나오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임 선교사의 모습에서 어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임 전도사는 장신대학교와 바이올라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고 풀러민대학교에서 신학석사를 받았다.

▲연락처: Estherlimjds@hotmail.com (이성자 기자)

## 박해와 선교현장(6)

###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3)



4. 삶의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의 만남은 가급적 주의해야 한다.

가족영역: 이슬람은 아프간의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무슬림으로 등록돼야 한다. 그밖에 다른 종교는 허용되지 않으며 생각할 수조차 없다. 개종한 종교로 등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기독교식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밀리에 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개종 사실을 숨긴 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식 예법에 따라 매장된다.

만약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녀들을 억지로 때려내 다른 무슬림 가정으로 입양시킨다. 이러한 아이들은 새로운 가정과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만약 개종한 사실을 주위에 숨긴 채 살아갈지

라도 자녀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계속해서 이슬람 교육기관인 마드라사(Madrassa)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어쩌다 부모의 개종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만약 개종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배우자가 이혼을 강요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양육권이나 재산 상속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무슬림배경신자(MBBs)들은 때때로 가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구금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슬람을 떠나는 행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영역: 개종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지역사회 자원과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누구나 이슬람사원에 참석할 것을 강요당기에 무슬림 배경신자(MBBs)들이 의심받지 않은 채 빠져 나오기란 무척 어렵다. 지역사회는 명령에 충성할 것을 강요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시하며 감시하고 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아프간의 이슬람식 종교관과 정치관으로 되돌아올 것을 강요당한

다. 이를 위해 신체 고문이나 주술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무슬림배경신자(MBBs)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짓된 교육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온갖 곤란한 상황들에 처하게 된다. 만약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조사와 심문을 받게 된다. 심문은 정부 당국과 관계없이 탈레반 또는 IS에 의해 혹독하게 자행되고 있다.

국가영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어떠한 법도 이슬람의 규정과 교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많은 지역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슬람을 반대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불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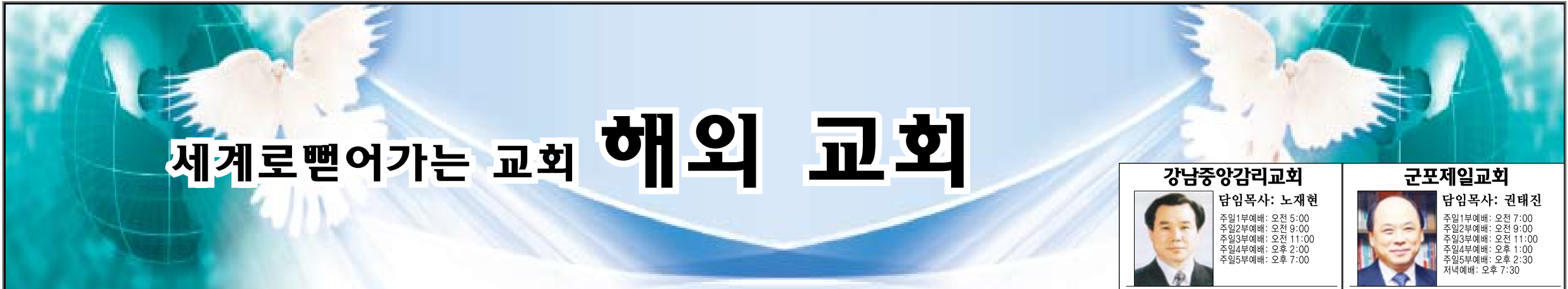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공화국이며, 무슬림 신앙 외에 그 어떠한 종교도 허용되지 않는다. 개종 혐의는 신성모독에 해당되며,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제외한 무슬림 및 소수자만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이슬람교와 아프간 종족과 문화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아닌 다른 심각한 범죄 즉, 국외정보기관의 스카, 살인 또는 마약 사범과 같은 반역죄로 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교회영역: 아프가니스탄에는 공식적으로 교회가 없다. 수도 카불(Kabul)에 위치한 이탈리아 대사관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예배당이 전부이다. 이마저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외 대사관 직원들과 군인들 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다. 탈레반 또는 감시기관에 통보된 모든 모임은 강도 높은 감시를 받게 된다. 종교 집단의 크고 작음은 문제되지 않으며, 모든 모임은 감시의 대상이 된다.

종종 성경 전달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거나 더 큰 단체와 접촉하기 전까지 감시하거나 잠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연행해 심문한다. 물론 기독교 관련 자료들은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인터넷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가까이에서 감시한다. 인터넷 사용은 외딴지역일수록 접속이 어려워진다.

〈오픈도어〉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                                                                                                                                                                                                                                                             |                                                                                                                                                                                                                                |                                                                                                                                                                                                                                       |                                                                                                                                                                                                      |                                                                                                                                                                                                                                          |                                                                                                                                                                                                                         |                                                                                                                                                                                                                          |
|-------------------------------------------------------------------------------------------------------------------------------------------------------------------------------------------------------------------------------------------------------------|--------------------------------------------------------------------------------------------------------------------------------------------------------------------------------------------------------------------------------|---------------------------------------------------------------------------------------------------------------------------------------------------------------------------------------------------------------------------------------|------------------------------------------------------------------------------------------------------------------------------------------------------------------------------------------------------|------------------------------------------------------------------------------------------------------------------------------------------------------------------------------------------------------------------------------------------|-------------------------------------------------------------------------------------------------------------------------------------------------------------------------------------------------------------------------|--------------------------------------------------------------------------------------------------------------------------------------------------------------------------------------------------------------------------|
| <b>금란교회</b><br>담임목사: 김정민<br>주일1부예배: 오전 8:0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1:30<br>주일5부예배: 오후 7:30<br>www.kumlan.org<br>Tel. (82)2-490-7000, Fax. (82)2-436-5770<br>서울시 중랑구 금란동 340-1 (131-231)                                       | <b>든든한교회</b><br>담임목사: 장향희<br>주일1부예배: 오전 7:0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00<br>주일4부예배: 오후 1:30<br>주일5부예배: 오후 7:00<br>금요철야예배: 오후 9:00<br>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br>(주)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 <b>로마한인교회</b><br>담임목사: 한평우<br>주일1부예배: 오전 7:0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후 4:00<br>수요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br>Tel. 39-06-827-3585, 39-348-339-1726<br>39-06-843-8676(교육관)<br>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 <b>새에덴교회</b><br>담임목사: 소강석<br>주일1부: 오전 7:30<br>주일2부: 오전 9:30<br>주일3부: 오전 11:00<br>주일4부: 오후 12:30<br>주일5부: 오후 2:30<br>(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br>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br>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 <b>성문교회</b><br>담임목사: 황정식<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30<br>주일3부예배: 오후 3:30<br>새벽기도회: 오전 5:00<br>새벽2부예배: 오후 6:30<br>Tel. (82)2-2646-3181~3, (82)2-2646-3184<br>서울시 강서구 독2동 520 (158-808)                                          | <b>성실교회</b><br>담임목사: 김영복<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10: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3:00<br>www.seongsil.or.kr<br>Tel. (82)2-998-9988, Fax. 3927-1008<br>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 <b>성일교회</b><br>담임목사: 김정곤<br>주일1부예배: 오전 5:30<br>주일2부예배: 오전 9: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00<br>주일4부예배: 오후 3:00<br>주일5부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br>Tel. (82)2-2643-8553~4, Fax. 2648-4662<br>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
| <b>수정교회</b><br>담임목사: 조일래<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7:30<br>수요예배: 오후 7:30<br>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br>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04-270)                                                             | <b>승등교회</b><br>담임목사: 박상훈<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30<br>주일4부예배: 오후 3:00<br>수요예배: 저녁 7:00<br>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br>(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                                       | <b>시온소교회</b><br>담임목사: 김성길<br>주일1부예배: 오전 7:00<br>주일2부예배: 오전 9: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00<br>주일4부예배: 오후 2:00<br>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br>Tel. (031)253-1004, Fax. (031)253-1010<br>경기도 수원시 신갈동 419-2                                          | <b>신길교회</b><br>담임목사: 이기용<br>주일1부예배: 오전 7:00<br>주일2부예배: 오전 9: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3:00<br>주일5부예배: 오후 7:00<br>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br>서울 양평구 신갈1동 63-3, (150-051) | <b>신천교회</b><br>담임목사: 송용결<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1:00<br>주일4부예배: 오전 11:30<br>주일5부예배: 오후 3:00<br>새벽기도회: 오전 5:00/6:00<br>Tel. (02)418-0481 Fax. (02)422-0751<br>서울시 중랑구 독2동 171 (131-231)<br>www.shinchon.org | <b>신촌교회</b><br>담임목사: 박노훈<br>주일1부예배: 오전 6:00<br>주일2부예배: 오전 7:30<br>주일3부예배: 오전 9:30<br>주일4부예배: 오전 11:30<br>주일5부예배: 오후 1:30<br>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br>서울 강북구 안암동 49-45<br>www.eschinchon.org         | <b>안암 제일교회</b><br>주일1부예배: 오전 9:2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3부예배: 오후 2:30<br>주일4부예배: 오후 7:30<br>금요기도회: 오후 8:00<br>Tel. (82)2-926-4508<br>서울시 용인구 신원동 50-1<br>www.anam.or.kr                                               |
| <b>양곡교회</b><br>담임목사: 지용수<br>주일예배1부: 오전 7:00<br>주일예배2부: 오전 9:00<br>주일예배3부: 오전 11:40<br>주일제네예배: 오후 7:30<br>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br>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br>Tel. (055)210-5500, Fax. (055)210-5510<br>(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br>www.yangokg.org | <b>왕성교회</b><br>담임목사: 김요나<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1:30<br>Tel. (82)2-888-4813, 331-284-7204<br>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 <b>장위제일교회</b><br>담임목사: 신일권<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예배: 오후 3:00<br>새벽기도회: 오후 5:00<br>금요기도회: 오후 9:30<br>Tel. (82)942-6881, Fax. (02)942-6882<br>(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 <b>주안교회</b><br>담임목사: 주승중<br>주일1부예배: 오전 6:00<br>주일2부예배: 오전 8:00<br>주일3부예배: 오전 10:00<br>주일4부예배: 오후 2:00<br>주일5부예배: 오후 4:00<br>주일7부예배: 오후 7:00<br>Tel. (82)2-527-1009<br>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 <b>창대교회</b><br>담임목사: 최용도<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10:20<br>주일3부예배: 오전 11:30<br>주일4부예배: 오후 3:00<br>주일5부예배: 오후 7:00<br>Tel. (82)2-482-3536, Fax. (82)2-488-4508<br>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 <b>청주주님의교회</b><br>담임목사: 주서택<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3부예배: 오전 2:00<br>주일4부예배: 오전 7:00<br>금요기도회: 저녁 9:00<br>새벽기도회: 새벽 5:30<br>Tel. (043)275-9191, Fax. (043)273-8114<br>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 <b>충신교회</b><br>담임목사: 이진호<br>주일1부예배: 오전 7:00<br>주일2부예배: 오전 8:30<br>주일3부예배: 오전 10:00<br>주일4부예배: 오전 11:30<br>주일5부예배: 오후 1:30<br>Tel. (82)2-793-7740<br>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45)

##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6)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살펴본 일반적 의미에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의 정의, 목표 및 근간적 의미, 그리고 그 확장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인 교회교육에서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교회 내 “성경적 통합교육”의 가장 큰 전제는 우리 교회들이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 즉 성경을 교육할 때,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축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고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도 그리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임을 말하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교회교육은 교육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방법, 교육자와 피교육자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살펴볼 때,

게다가 이는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의 행위 외에도, 비형식적이고 비의도적인 많은 outside의 상황을 통해 학습되고 성장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식으로라도 교육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 있다면 매우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진솔하게 말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목적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 학교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의 접목으로, 우리 교회교육의 목적이 보다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연령적으로 적합한 표현으로 다시 세워졌다고 한다네 (그것이 아니라도 뭐라도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교회가 그 목적을 확실하게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어느 문서나 혹은 홈페이지에 어떤 교육 목적이 적혀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교회 전체가 이를 동의하고 이를 위해 함께 교육하지 않는

들의 한 예는 “우리 자녀들이 중 고등부를 마치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게 되며,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들의 실제생활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 되, 목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예보다 더 구체적 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목적 및 목표표를 분명히 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 외에, 목적 및 목표표와 관련하여,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 목적 및 목표에 있어서는 편향성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교육의 현실을 보면 목적 및 목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회자되는 혹은 실행되는 교육의 성격들로 판단해 볼 때, 편향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두려울 지경입니다. 각 교회의 신앙 색에 따라 그 윤곽이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해도, 극단적인 편향성만은 지양해야 하겠습니

추상적이지 않은 교육 목적에 합당하며 적극적으로 구체적 목표 세워

인격과 도덕성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의 균형 잡힌 신앙성숙 추구해야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며, 이에 성경적 통합교육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회의 “교육 목적 및 목표”라는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미흡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교육의 목적이 보다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연령적으로 적합한 표현으로 다시 세밀화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이 평생토록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삶을 살도록 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이므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추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일례를 들어, 성경적 통합 교육적 표현을 차용해 말하자면, 우리의 교육 목적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기반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가르치며, 자녀들의 전 삶을 이끌어 가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공고히 심어주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교회들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앞에서 표현한 것과 같은 기본 틀이 공고하게 다져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을 통해 일구어 나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제인 것이지, 우리 자녀들이 어느 한 지점에서 완결할 수 있는 교육 목적이 아닙니다.

다면, 이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 각 교회 기존 교육 목적이 유명무실하거나 혹은 불분명하다고 혹은 부재한다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바로 소통의 부재 때문일 공산도 크리라 봅니다.

전체 교육 목적에 함당하게 세세한 교회의 목표들을 교회들마다, 교육부의 부서들마다 세우고 질서 있게 계획성 있게 교육에 임해야 할 터인데, 교육 목적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조금 격하게 말해 우리의 교육은 참으로 사상누각과 같고, 방항성을 잃고 중구난방의 형세라 볼, 의미 없는 편린들을 모아 놓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목적이 세워지고 또한 그 목적이 전 교회적으로 소통이 되어 편안하게 공유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합당하게 보다 세부적인 목표들을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들은 교육의 목적이 부재하거나 불분명하고, 불분명하게 혹은 불분명하게라도 존재하더라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목적이 부합하는 교육 목표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지만, 교육의 목적에 따른 교육의 목표들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전방에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를 들어, 어느 한 교회가 그 교육 목적을 성경적 통합 교육적 이해에 입각하여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공고히 심어주는 것이라고 세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작은 단위의 목표

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성경적인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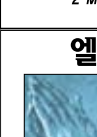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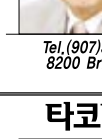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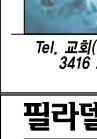
어떤 교회는 자녀들에게 영성을 길러주는 것이 유일한 교육의 목적인 듯 행하기도 합니다. 광장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영성이 “인격과 도덕성”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영성, 성경적인 영성이라면 그래도 될 문제가 되겠지만, 신비주의적이고, 방언이나 입신 등을 신앙성숙의 최고봉으로 여기며, 이걸 가지고 신앙 성숙여부를 판단하는 영성은 비기독교적이며 비성경적이며 그래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이성적으로 연령적 이해와 세대적 배려 없이 어른들의 방식대로 아이들에게 똑같은 울부짖는 기도회를 요구하며 이를 기독교 교육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적인 통행교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교리 습득과 성경의 문자적 암송을 교육의 전부로 알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서 그치면,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맺음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 못하게 되고, 또한 삶으로의 체화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며, 이는 신앙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올바른 모습의 성경적 통합교육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실천되어야 할 성경적 통합교육은 균형 잡힌 신앙성숙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 세 계로 뚫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                                                                                                                                                                                                                                                                                                                                                                                                    |                                                                                                                                                                                                                                                                                                                                                                                                              |                                                                                                                                                                                                                                                                                                                                                                                                     |                                                                                                                                                                                                                                                                                                                                                                                                                                                             |                                                                                                                                                                                                                                                                                                                                                                                                                                                            |                                                                                                                                                                                                                                                                                                                                                                                                                   |                                                                                                                                                                                                            |
|----------------------------------------------------------------------------------------------------------------------------------------------------------------------------------------------------------------------------------------------------------------------------------------------------------------------------------------------------------------------------------------------------|--------------------------------------------------------------------------------------------------------------------------------------------------------------------------------------------------------------------------------------------------------------------------------------------------------------------------------------------------------------------------------------------------------------|-----------------------------------------------------------------------------------------------------------------------------------------------------------------------------------------------------------------------------------------------------------------------------------------------------------------------------------------------------------------------------------------------------|-------------------------------------------------------------------------------------------------------------------------------------------------------------------------------------------------------------------------------------------------------------------------------------------------------------------------------------------------------------------------------------------------------------------------------------------------------------|------------------------------------------------------------------------------------------------------------------------------------------------------------------------------------------------------------------------------------------------------------------------------------------------------------------------------------------------------------------------------------------------------------------------------------------------------------|-------------------------------------------------------------------------------------------------------------------------------------------------------------------------------------------------------------------------------------------------------------------------------------------------------------------------------------------------------------------------------------------------------------------|------------------------------------------------------------------------------------------------------------------------------------------------------------------------------------------------------------|
| <div><div><b>갈보리장로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조웅철</b><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br/>수요기도회: 오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br/>오전 6:00(토)<br/><br/>Tel. (702)579-7576, Fax. (702)267-0911<br/>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div></div>            | <div><div><b>몽고메리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최해근</b><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br/>수요예배: 오후 8:00<br/>금요기도회: 오후 8:00<br/>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br/><br/>Tel. (610)222-0691, 267-471-7777<br/>Fax. (610)222-0692<br/>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div></div>              | <div><div><b>빅스카운티장로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김풍운</b><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수요찬양예배: 오전 11:30<br/>영 애 배: 오후 10:00<br/>수요찬양예배: 오후 8:00<br/><br/>Tel. (215)945-1512, Fax. (215)945-2095<br/>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div></div>                                | <div><div><b>벧엘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백선종</b><br/>주일 1부예배: (한:) 오전 7:00<br/>주일 2부예배: (한:) 오전 8:15<br/>수요찬양예배: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 (한:) 오후 1:45<br/>EM예배: 오전 8:00<br/>수요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br/><br/>Tel. (410)461-1235, Fax. (410)461-5823<br/>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br/>http://www.bethelchurch.org/</div></div> | <div><div><b>보스턴장로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강성철</b><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30<br/>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br/>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br/>금요찬양예배: 오후 8:00<br/>영애, 유치, 부흥예배: 오전 10:45<br/>수요교부예배: 오전 10:45<br/><br/>Tel. (508)435-4579, Fax. (508)435-0009<br/>2 Main St., Hingham, MA 01948</div></div>                                                 | <div><div><b>샬롯장로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나성균</b><br/>주일 1부예배: 오전 10:45<br/>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br/>금요찬양예배: 오후 8:00<br/>대형찬양예배: 오후 1:00<br/>수요 예배: 오후 8:00<br/>영애, 유치, 부흥예배: 오전 10:45<br/>수요교부예배: 오전 10:45<br/><br/>Tel. (704)877-6642, Fax. (704)529-0000<br/>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div></div> | <div><div><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div><div>■ L.A.: Tel. (323)665-0009<br/>Fax. (323)665-0046<br/>■ N.Y.: Tel. (718)886-4400<br/>Fax. (718)886-0074</div><div><b>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b></div></div> |
| <div><div><b>시애틀평강장로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박은일</b><br/>주일 1부예배: 오전 10: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15<br/>수요찬양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br/>토요일: 오전 6:00<br/><br/>Tel. (206)527-9981, Fax. (206)524-1746<br/>4040 N. 105th St., Seattle, WA 98125<br/>www.kppcsseattle.org</div></div>          | <div><div><b>안디옥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강준순</b><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예배: 오후 7:30<br/>새벽예배: 오전 6:00(월-토)<br/><br/>Tel. (702)749-9929, Fax. (702)778-6876<br/>7835 Dean Martin Dr., LV NV 89139<br/>www.cmychurch.org</div></div>                                                  | <div><div><b>알칸사 제자들과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전남수</b><br/>주일 1부예배: 오전 11:30<br/>주일 2부예배: 오후 4:00<br/>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br/>금요예배: 오후 8:00<br/>새벽예배: 오후 6:00(월-토)<br/><br/>Tel. (501)920-9049, 사서. (501)426-5178<br/>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br/>www.jejas.com</div></div>                 | <div><div><b>앵커리지얼린문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유재일</b><br/>주일 1부예배: 오전 10: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영애예배: 오전 11:00<br/>주일 4부예배: 오후 2:00<br/>수요예배: 오후 7:00<br/><br/>Tel. (907)344-6446, Fax. (907)344-3182<br/>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div></div>                                                                                               | <div><div><b>엘파소얼린문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유재일</b><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매)<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4부예배: 오후 7:30<br/><br/>Tel. (915)755-1490, 사서. (915)751-4365<br/>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div></div>                                                                                                                                 | <div><div><b>영생장로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백은영</b><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수요찬양예배: 오전 12:00<br/>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br/>수요예배: 오후 8:00<br/>금요기도회: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br/><br/>Tel. (215)542-0288, Fax. (215)542-9037<br/>706 Witmer Rd., Morsham, PA 19044</div></div>           | <div><div><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div><div>■ L.A.: Tel. (323)665-0009<br/>Fax. (323)665-0046<br/>■ N.Y.: Tel. (718)886-4400<br/>Fax. (718)886-0074</div><div><b>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b></div></div> |
| <div><div><b>킬린온누리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김성한</b><br/>주일예배 1부: 오전 9:00<br/>주일예배 2부: 오전 10:50<br/>수요찬양예배: 오전 7:00<br/>금요백성예배: 오후 8:00<br/>토요장년모임: 오후 3:00<br/>새벽예배: 오전 5:30(월-금)<br/><br/>Tel. (254)634-8705(H), (254)501-4933(C)<br/>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div></div> | <div><div><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한세영</b><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찬양예배: 오전 11:30(EM)<br/>금요예배: 오후 8:00<br/>수요기도회: 오후 8:00<br/>새벽예배: 오전 5:30(월-토)<br/><br/>www.mpcow.org<br/>Tel. (703)941-4447, Fax. (703)941-4443<br/>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div></div> | <div><div><b>주 예수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배현찬</b><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br/>주일 4부예배: 오전 11:15<br/>수요찬양: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토)<br/><br/>www.jkc.org<br/>Tel. (804)560-7500, Fax. (804)560-7514<br/>1202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div></div> | <div><div><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박상호</b><br/>주일 1부예배: 오전 8시<br/>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br/>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br/>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br/>주일 4부예배: 오전 1시<br/>수요 예배: 오후 7시<br/>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br/>(월-토)<br/><br/>Tel. (253)536-6675, (253)888-9249<br/>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br/>www.tacomaccm.com</div></div>                     | <div><div><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div><div></div><div><b>담임목사: 조진소</b><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00<br/>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br/>영애예배: 오전 11:00<br/>영애예배: 오전 11:00<br/>청년예배: 오후 2:00<br/>수요예배: 오후 7:45<br/>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br/><br/>Tel. (215)927-0630, Fax. (215)927-0643<br/>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br/>www.kucp.org</div></div> | <div><div><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div><div>■ L.A.: Tel. (323)665-0009<br/>Fax. (323)665-0046<br/>■ N.Y.: Tel. (718)886-4400<br/>Fax. (718)886-0074</div><div><b>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b></div></div>                                                                                                                                                                                                        | <div><div><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div><div>■ L.A.: Tel. (323)665-0009<br/>Fax. (323)665-0046<br/>■ N.Y.: Tel. (718)886-4400<br/>Fax. (718)886-0074</div><div><b>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b></div></div> |

인/터/뷰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부부(엘살바도르)

“꿈나무세대에게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고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도록 가르칩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2-3시간 떨어져 있는 산골짜기 마을 뽀뜨레리요스, 주민 1500-2천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 첫 기독교 선교사로 파송된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부부가 뉴욕을 방문했다.

뉴욕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를 은퇴하고 선교목사(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호 해외선교사)로 파송된 지 2년 반밖에 안된 신참 선교사지만 복음의 황무지에서 도착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추방당한 현지인 통역자가 예비(?)돼 있는 바람에 언어소통의 불편함 없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

물론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으로 한 달 동안 두 부부가 고생을 했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사역이 확장되고 있다.



황영진 목사와 황은숙 사모

이 많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90%다. 모계중심으로 정상적인 가정개념이 없

“지난 9월에는 일주일 사이에 200명이 살해됐죠. 유명한 두 집단이 있는데 두 파가 이권 다툼으로 서로 죽이고 또 정부에 불만을 품고 군인과 경찰들도 공격하는 지경이죠. 세계에서 인구밀도당 살인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다 행히 저희 선교지는 산간벽지라 위험은 없습니다”라고 황영진 선교사는 말한다.

1980년부터 92년까지 내전을 치르면서 경제가 하락하고, 선교지 마을에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10% 정도이며 밀입국으로 미국에 간 가족이 송금하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자연히 미국 가는 것이 최대 희망이다. 화폐도 달러를 사용하며 물가도 비싸다.

마을 주민들은 옥수수나 닭 등을 키워 자급자족으로 식량을 해결한다. 미혼모가 많으니 아이들

다.

“아이들이 꿈도 없고 생기도 없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인도로 세계 각국의 결식아동을 돕는 이화동문들이 운영하는 GCF(Global Children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합니다. 정교사 2

명, 보조교사 2명이 있으며 현재 7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입니다.”

방과후 학교는 유초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영어, 컴퓨터, 태권도, 축구, 탁구, 음악연주 및 합창단 등 황 선교사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찬양단은 크리스마스엔 수도 산살바도르에 있는 한인교회 2곳을 방문해서 찬양을 하고 대접도 받는다.

지난 2년 반 동안 황 선교사는 현지 원주민 교회와 선교센터 예배당을 건축했다. 그 건축도 우연한 손길을 통해 이뤄졌다. 하나님

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더 가난하고 외진 산벨립빠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그 지역에 가서 꾸준히 노방전도를 한 탓에 예배 참여자가 늘어나 현재 길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교회당을 세워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볼 때 장년들이 오지만 그들을 개종시키기는 너무 힘듭니다. 대부분 카톨릭인데 민족전통 사머니즘과 혼합된 카톨릭이죠. 선교센터에 오긴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열린 발이죠. 가르치는 대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황 선교사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 꿈나무 세대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고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도록 가르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 사역이 있다.

먼저 신학교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 뉴욕신학대학(총장 권오현 박사) 분교로 ‘엘살바도르 신학

터 시작해 초중고를 거쳐 기숙사까지 있는 신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처음에 선교센터에 갔을 땐 아침에 일어나면 박쥐똥, 도마뱀똥, 온갖 벌레들 똥이 가득했죠. 그러나 지금은 약도 뿌리고 청결을 유지하며 깨끗한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살며 동거동락한 까닭에 현지 주민들에게 ‘빅마마’로 불리우며 동역하는 황은숙 사모는 요즘 선교센터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경통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완독한 어린이에게 수료증도 주며 고무시킨다.

황영진 선교사가 강조하는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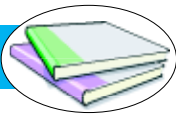
“선교지에서는 나눔과 배움, 구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제는 일시적이고 또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그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고 이제 첫발을 댄 셈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는 20년 후에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20년후, 30년후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격려합니다.”

“염려나 고민은 없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며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한다”는 황 선교사는 “조지 몰러에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황 선교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초보 선교사에게 전적으로 함께 하셔서 사람을 연결시켜주시고 사역을 확장시켜주시겠냐”고 되묻고 “지속적으로 후원해주는 교회들과 단체, 뜻하지 않게 후원해준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방과후 학교 시작으로 어린영혼들에게 복음전도  
신학교 세워 현지 지도자 양성해 교회개척 연결

책 소개



“선교사 아무나 하나”

저자 정권수



본서 “선교사 아무나 하나”는 2006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온두라스 선교사로 헌신했던 정권수 선교사의 선교보고 일기와 같은 책이다. 정 선교사는 지난 10년의

사역을 10개월 동안 옮겨놓았다고 한다.

책은 제 1기 선교사 아무나 하나, 제 2기 라 모스키디아, 제 3기 육군 사관학교, 제 4기 또 한번의 기회로

나뉘 총 117개의 스토리로 편집됐다.

정 선교사는 책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라 믿었다. 내 자아가 발견되고 내게 맞는 사역 지역과 대상이

역을 하게 하고 나서 다시 나를 육사로 보냈다.”

또 맺는말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고파 할 때 식물을 먹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였다. 나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온두라스 사역 10년의 자전적 간증스토리

보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세워 사역을 하게 성령이 인도하고 있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그 일로 하나님은 나를 3년간 라 모스키디아에서 사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다 버렸다.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고 온두라스로 갔다. 그곳에서 내 원수가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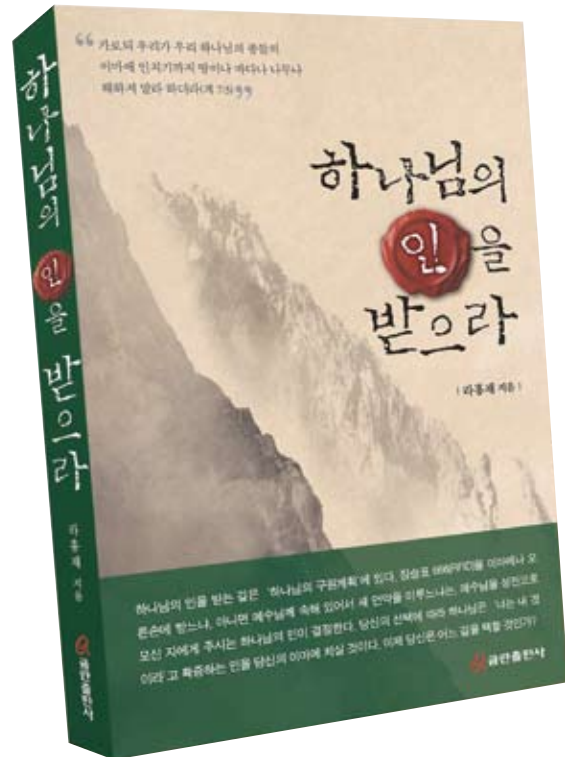
정 선교사는 건강상의 문제로 온두라스를 떠났지만 현재 LA에 거주하며 복음의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유원정 기자〉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